

대학내일

+

CULTURE

한국영화는 안 돼?

올해 돈 번 영화 고작 8편
도대체 뭐가 문제야? 들어나 보자

INTERVIEW

소년공화국

그게 누구냐고?
읽어 봐, 입덕하게 될테니

GEEK

「미스터리」 김용언 편집장

설록, 크라임 씬, 김전일이 좋다면
당신도 미스터리 마니아!

NO.744
2015.7.13
~2015.7.26
www.naeilshot.co.kr

Weekly Choice

내가 학교로 보여?

어둠이 깔린 캠퍼스는
네가 알던 그곳이 아닐걸?

Audio

Day 1.

오랜만이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Video

Na) 우리는 학생 때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처음 만났다.

그리고 6년 만이다

(찰각)
나는 수스키,
어제까지 밤새다 나온
직딩 6년차

(찰각)
재는 택형,
인간 내비게이션

(찰각)
준스키,
우주인 선발에 탈락한
예비 치과의사

(찰각)
그리고 설범,
걸어다니는 위키피디아

할배도 청춘도 아닌 레알 직딩 우리가
러시아를 다시 찾았다

Na) 엑셀런스 인 플라이트
코리안 에어



6년 전 찍은 멤버 사진 컷



수스키, 뒤돌아보며



택형, 카메라 바라보며



준스키, 미소 close up



달리는 설범, camera full shot



로그) 러시아 여행자 클럽
대한항공



파란만장

삼성그룹 대학생 끼봉사단 모집

파란만장 이란?

다양한 끼를 가진 대학생이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
열정 퍼포먼스를 통해 20대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봉사 활동 프로그램



모집기간

2015년 6월 29일 ~ 7월 22일

모집대상

2년제 이상 대학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혹은 활동경력 2년 이상의 대학생 연합동아리
(동아리당 2명~7명 지원가능)

모집분야

‘끼’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동아리
노래, 춤, 미술, 사진, 연극, 치어리딩, 연주, 국악, 풍물 등
공연/퍼포먼스가 가능한 전 분야

모집인원

00팀

지원방법

www.youngsamsung.com
영삼성 홈페이지 內 파란만장 끼 봉사단 지원하기 클릭

전형일정

서류발표 : 2015년 7월 27일
면접전형 : 2015년 7월 30일~7월 31일
최종발표 : 2015년 8월 5일

주요활동

전국 7개 도시에 찾아가
이웃들에게 공연 봉사 실시

활동기간

2015년 8월~11월
(4개월 중 최소 1회 이상 공연 봉사)

활동혜택

소정의 활동비 지급
삼성그룹 주최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
연말 ‘파란만장 끼 페스티벌’ 참가 자격부여
(우수 공연 동아리에는 장학금 제공)



Weekly

Editor in chief 전아론 aron@univ.me
Photographer 박시열

Cover

Weekly

interview

소년공화국

이수웅 건국대학교 영화학 15(재)

최선우 세종사이버대 영어영문학 14(후)



Model

젊은 재능들이 모여서 이뤄지는 봉사활동

YOUNG TALENT 2nd

: 영 토틀런트 2기



끼와 재능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재능기부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고등학생 및 대학생 동아리(단체) / 기타 일반 청년 동아리 단체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신청
- 신청기간 2015년 7월 6일 ~ 7월 19일
- 신청방법 공식 카페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E-mail 제출
(<http://cafe.naver.com/youngtalentgive>)
- 활동기간 2015년 7월 ~ 11월
- 교육일정 7월 29일(수도권), 7월 30일(지방)
- 문의처 Young Talent 2기 운영사무국 (02-6959-1764 / talentgiving@naver.com)

- 활동혜택 동아리 활동비, 재료비 지원, 우수 활동 동아리 상장 및 포상
- 모집부분 및 활동 공연 : 밴드, 댄스, 무용 등의 공연진행
벽화그리기 : 시장의 빈 공간을 활용한 벽화 그리기
디자인 : 시장 소품 디자인 또는 POP제작
ICT활용 : 각 시장 상황과 특성에 맞는 ICT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마케팅 : 전통시장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인에게 소년공화국이란 어떤 의미인가.

선우 인생의 출발점. 나의 20대 시작을 소년공화국과 함께하고 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해준 의미이다. 수웅 나의 인생. 고등학생 때부터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나=소년공화국. 떼어놓을 수 없다.

이제까지 나온 앨범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은?

선우 Hello. 나의 콘셉트와 가장 비슷한 느낌이다. 수웅 Video Game. 중독성 있는 노래와 멋진 안무가 잘 어우러진 것 같다.

12

Weekly Sentense

내 옆에 있는 사람

14

Place

우주만물

16

Covermodel's Beauty

이주의 모델 선우씨의 뷰티 아이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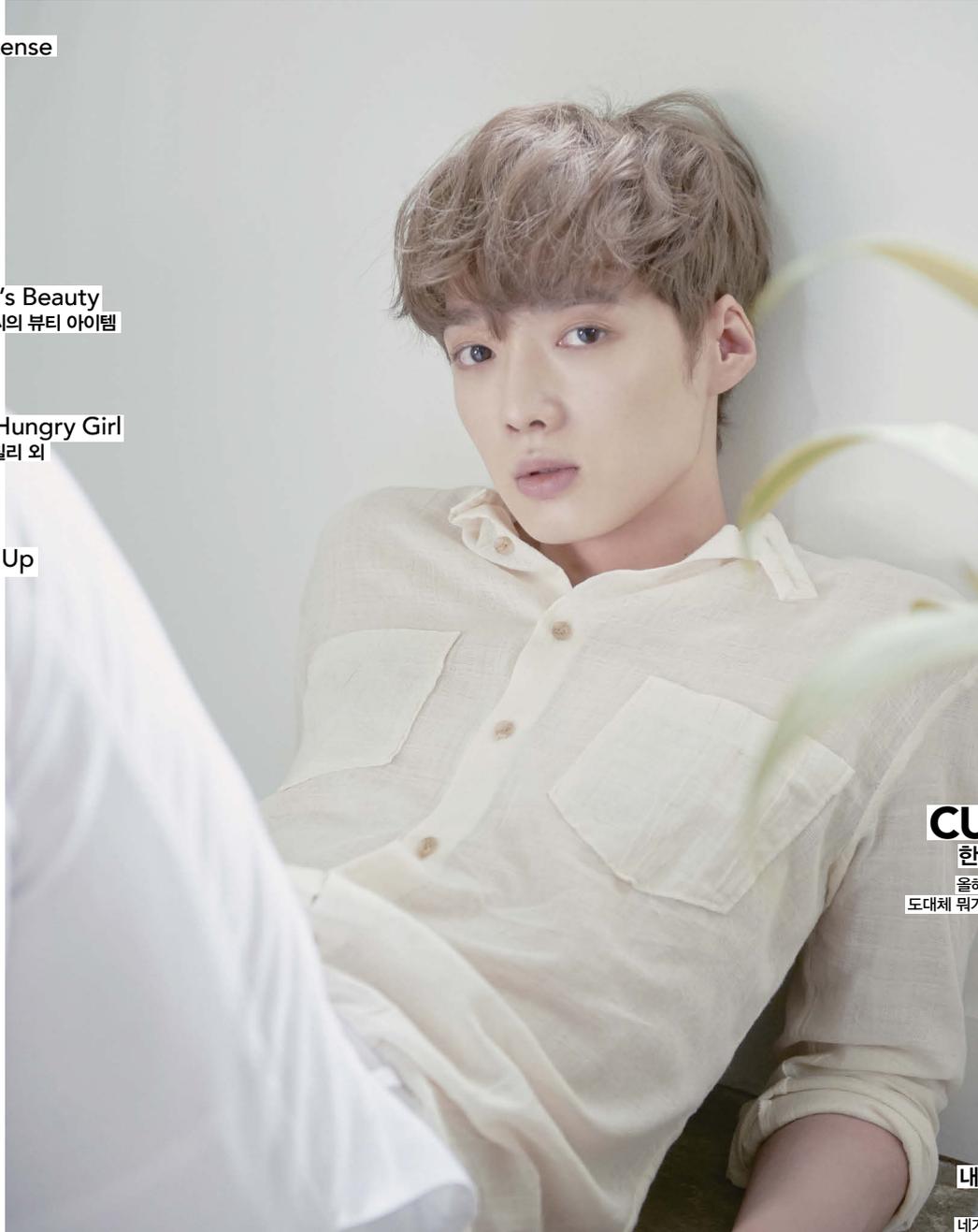
Thirsty Boy Hungry Girl

프랑글스 스위트 칠리 외

6

20

Weekly Pick Up



34

CULTURE

한국영화는 안 돼?

올해 돈 번 영화 고작 8편
도대체 뭐가 문제야? 들어가 보자

39

ISSUE

내가 학교로 보여?

어둠이 깔린 캠퍼스는
네가 알던 그곳이 아닐걸?

SAMYANG®

여름엔 역시
냉불닭

불닭이
차가울수록,
너의 혀는
더 뜨거워질거야



냉불닭 볶음면 레시피

- 1 용기 뚜껑을 열고 익상스프를 꺼낸 후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은 후 뚜껑을 닫고 **4분간** 기다립니다.
- 2 익힌면을 건져 **냉수에 헹군 다음** 물기를 빼고 **익상스프**를 넣어 비벼주세요.
- 3 면위에 **볶음참깨**와 **구운 김가루 후레이크**를 뿌린 후 기호에 맞게 **채소** 등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더워 허니
허니치즈가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여름별미

냉허니치즈



냉허니치즈 볶음면 레시피

- 1 용기 뚜껑을 열고 분말스프를 꺼낸 후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은 후 뚜껑을 닫고 **4분간** 기다립니다.
- 2 익힌면을 건져 **냉수에 헹군 다음** 물기를 빼고 **분말스프**를 넣어 비벼주세요.
- 3 마지막으로 **할라피노맛 오일**을 넣고 잘 섞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아닌, 20대 남자로서 최근 제일 관심있는 것은 무엇인지.

선우 외모? 이유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웃음). 남자는 25살부터 주름이 생긴다고 들었다. 수웅 스타일, 내 나이에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일 것 같다.

각자 앞으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나.

선우 우선 소년공화국을 많이 알리고 싶다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분야에도 도전을 하고 싶다. 수웅 전세계 사람들이 소년공화국을 알 때까지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다.

44

GEEK

「미스터리아」 김용언 편집장
설록, 크라임 씬, 감전일이 좋다면
당신도 미스터리 마니아!

46

INTERVIEW

소년공화국

그게 누구냐고?
읽어 봐, 입력하게 될테니!

8



31

Weekly Perfectoon

사라세니아

32

Review Kim

김리뷰의 문화컬쳐

38

Otaku's Map

터미네이터 제니스스

50

Think

길잃은 흥터들을
생각하다

52

20'S Voice

나의 베껴 쓰기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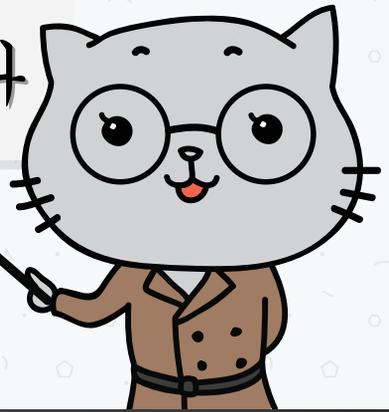
20대만을 집요하게 파고든 신박한 트렌드 지침서!

너님들의 죽어가는 트렌드 감각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
읽어라, <2015 F/W 20's TREND REPORT!>



살려야한다

너님들의 트렌드 세포를
살려야 한다옹!



2015년 하반기, 20대를 예측하는 키워드 5

코드갱어

[code:ganger]

코드 하나로 통하는
친구가 필요한 20대

필터봇

[filter:bot]

홍보가 아닌 진짜 정보만
걸러내는 20대

셀부꾼

[sel:bou:kkun]

나를 위한 가치에
소비하는 20대

짤토커

[zzal:talker]

언어 대신 한장의
짤로 대화하는 20대

날르가즘

[nal:rgasm]

날것의 콘텐츠에
오르가즘을 느끼는 20대

그 밖에 < 2015 F/W 20's TR > 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옹~

- 20대의 SNS사용법 키워드 3가지
- 20대의 언어를 알려주는 핫키워드 30선
- 취업 및 채용시장 동향 키워드 4가지
- 20대의 속마음을 한 눈에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9선

STAFF

발행·편집인 장영국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이사 김창배

콘텐츠팀

팀장 이장섭
 편집장 전아론
 에디터 정문정 홍승우 기명균 김슬
 이민석 조아라 김혜원 박정욱
 김효룡 주태환 김수현 백수빈
 김진완 김효은 양주연 강민상

디자인팀

팀장 김해정
 디자이너 윤희선 이승은 조세진
 김지현 유승서

학생리포터

기획팀 강연주 고영훈 김정년 김지희
 김형태 장한범 정수환 정윤조
 최효정 황지현
 문화팀 김효진 류새힐
 문미나 박해주 정하영
 사진팀 장성수 조혜미
 프리랜서 김기형 임희정 전하은

20대 커뮤니케이션 본부

본부장 이태영
 책임에디터 신철

20대 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책임메니저 김지혜
 메니저 유리나 신예지 박미소
 김예지 김예림
 사원 송태광 조하니 송아라 이혜인

20대 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메니저 김영현 신현정 이지연
 홍보미 육혜진 김민정
 에디터 황혜원
 사원 한희진

20대 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김무진
 메니저 안길상 문왕기 조소라 나현아
 허이슬 손기석 권오태
 사원 김석우 손유리

20대 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이성진
 수석 정진현
 책임메니저 김동주
 메니저 신기은 양상범 명범준
 박정은 송승화 홍선아
 사원 손혜지 박상현

HR PRO팀

팀장 김중원
 책임메니저 박준하 유재문
 메니저 최규성 유진혁 홍성우 신재영
 사원 김형민 이준호 서창호 정기현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책임메니저 진우경 강국현
 메니저 김민아
 사원 박윤희 이상엽 안성은 송정훈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이동선 김범준
 수석 이해정
 책임메니저 김현승
 메니저 남승혁 박종남 강희은
 이상진 우병조 김채현
 사원 조현상 이상복 정진복
 서준원 전단비 김찬우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박배길 차정기
 책임메니저 이혜민 이교영 이진희
 책임에디터 임영화 김효선
 메니저 유호정 권가람 권예빈 장현주
 양준호 홍새봄 이연제 박지성
 사원 김규태 김다은 김애리 김민주
 임이슬 김동규

미디어마케팅팀

팀장 탁귀영
 수석 황정은
 책임메니저 이수지
 메니저 최진성
 사원 황병두

이비즈(E-Biz)팀

팀장 권관진
 수석 임남훈
 책임메니저 강부록 하유희 고은영
 강주빈 안은지
 김상호 이은주 윤태형

20대연구소

소장 박진수
 수석연구원 김영기
 책임연구원 홍영성 문송이 송혜윤
 연구원 이재훈 임희수
 사원 임다정
 전문위원 신익태

SNS전략제안연구소

소장 정은우

컨벤션 파트

수석 이수이

기획지원파트

책임메니저 이윤경 방수진
 메니저 윤정심

인재경영팀

팀장 박진수
 수석 박지호
 책임메니저 조은주
 메니저 김이슬

재무팀

수석 김소연
 책임메니저 박옥민
 메니저 김주은

인턴

구지은 김유진 김정석 박솔빛
 정진주 최현정 황주영 한민아
 이은혜 선의진 장규홍 장미희
 조지은 김소영 양채을 황미나
 이예나 배준현 김성영 김주리
 김신아 김은미 박슬기 배용근
 송성일 송은영 오선정 이소정
 이현승 천희은 전혜원 정희성
 조윤희

마케팅리베로

송준한 오지선 이지영 정은지
 조민경 조해림 문나영

유니파일러

권세원 박지윤 박정호 유유리
 임예송 전유정 전효경 최진슬

인쇄

프리피아
 대표번호 02-735-3800
 팩스 02-735-0005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43.
 인성빌딩
 (주)나얼내일 홈페이지 www.naeshot.co.kr
 20대 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

Find



Cover Model

대학생이라면, **대학내일의**
커버모델에 도전하세요!

대학내일 표지모델 신청 방법!
Covermodel7@naver.com으로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사진은?

전신 사진 2장 이상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얼굴 사진 4장 (프로필 사진 제외)
+@끼를 뽐낼 수 있는 사진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 1 대학내일 표지와 내지를 장식하는 촬영 진행
- 2 짧은 인터뷰
- 3 '뷰티 인스타그램' 4가지 소개
- 4 그 외 대학내일 행사 참여



“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순간이
될 거예요!

”



내옆에있는사람

이주의 책,
이주의 문장,
그리고
에디터들의 이야기.

WRITER
이병률
PUBLISHER
달
PRICE
1만 4500원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황홀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그 어떤 꽃도 피울 수 없다는 것도 황홀입니다.

사람을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인간이 안가던 시절, 해매기도 많이 해매고 다녔다. 지금이라고 뭐 뽀족한 수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찬란할 때가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것도.

Editor in chief 전이론 aron@univ.me



몸 안에 암수의 생식소를 모두 지니고 있어,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있다. 불발된 사랑에 가슴이 시큰거릴 때면, 차라리 자웅동체 달팽이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물론 아픔에서 자유로우려면, 사랑에 빠질 수 없다는 천형을 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못 그럴 것 같다.

Editor 조이린 ahrajo@univ.me



사회 교과서 초반부에 인용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화를 거치지 못해 늑대 인간으로 자랐다는 사례가 뒤따른다.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응, 좋아, 그래' 연기를 했다. 이전 저 말에서 위압감을 느낀다.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싫어도 사회적 동물 웃을 입으라는 명령. 내가 나일 수만 있다면, 그까짓 인간 되지 못해도 괜찮다.

Editor 기명균 kikik@univ.me



스스로 '사회 부적응자'라 이름 붙이며 낱깍대길 즐긴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타인의 옆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사람. 관계의 기쁨이 뭔지 보여주는. 그런 이들 앞에서 내 미숙함과 어둠을 탓하다 관두기로 한다. 사람은 혼자 피어날 수 없다는 믿음부터 버리고, 기대지 않아도 서 있을 수 있게 내 뿌리부터 돌보자 다짐한다.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황홀함을 선사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며.

Editor 김슬 dew@univ.me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하는 K-Move 청년 해외진출 프로젝트



“이렇게 고급진 해외취업정보 들어 봤슈?”

음식에만 고급진 레시피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취업정보에도 고급진 해외취업정보가 있다. 바로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K-Move~!
K-Move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외 일자리에 대한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내실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K-Move의 알짜정보만 모아 본 지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 해외취업을 꿈꾼다면 여기에 주목하자.

K-Move 해외진출 정보 모아모아~



K-Move 스쿨 연수 모집

스펙을 초월한 글로벌 인재발굴 양성을 통한 해외 일자리 진출 확대를 위하여 2015년도 K-Move스쿨 연수생을 공개 모집한다.

해외취업을 위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취업 성공 장려금까지 지원되니 해외취업을 희망한다면 꼭 한번 지원해보자!

- ▷ 모집인원 : 총 659명
- ▷ 모집시기 : 수시모집(연수과정 별 상이)
- ▷ 모집분야 : IT, 경영, 패션, 건축 등
- ▷ 연수기간 : 경기(6~12개월) / 단기 (3~9개월)
- ▷ 정부지원 : 1인당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



서울 K-Move 센터 오픈

“약은 약사에게
해외취업은 서울 K-Move센터 전문 상담가에게”

해외취업 전문가의 처방을 원한다면,
서울 K-Move 센터로 오라.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당신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리니.



해외진출 선배의 한마디~!



이 강산

- K-Move 스쿨 연수생
- 2014 K-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해외 취업은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해외 취업을 하겠다고 결정했으면 절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이 정해졌으면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스펙은 정형화된 자격증이 아니라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펙이한들 앞에 갖혀 있지 말고 본인의 스토리를 스스로
설계하면 취업과 적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계지도를 펴 보십시오.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행동하는 자에게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K-Move 스쿨 연수

연수 기관명	취업 국가	연수과정명	모집 인원	모집 마감	연수기간	연락처
(사)한국 무역협회	일본	SMART Cloud 마스터과정(30기)	60	08/14	'15.08.07 ~'16.05.30	02)6000 -7139
(주)해외 교육진흥원	호주	호주 유아교육교사 자격취득 양성과정 (2기)	20	11/06	'15-11-23 ~'16-05-06	02)564 -9111

- ▷ 지원 서비스
: 해외진출 상담, 해외취업 정보제공,
해외취업 알선, 해외취업 역량진단 등
- ▷ 상담 신청방법
: 이메일(kmove@hrdkorea.or.kr) 또는
전화(02-6964-7071~3) 신청
- ▷ 찾아오는 길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서초고용센터 5층



보다 고급진 해외일자리 정보를 구하는 방법!

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20

“해외취업정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더욱 더 고급진 해외취업에 목마른 당신.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해 격주로 발표되는 ‘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20’을 눈여겨 보자. 이번 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20은 총 7개 국가, 14개 업체에서 선정되었고, 모집직종도 기술자 및 연구원을 비롯해 프로그래머, 총무 및 인사관리자, 자동차정비원까지 매우 다양하니 보다 고급진 해외취업정보에 대한 욕망은 여기서 해소해라.

파견 국가	업체명	모집직종	경력	급여(연) ·단위: 원	모집마감	파견 국가	업체명	모집직종	경력	급여(연) ·단위: 원	모집마감
미국	에이스테크	로봇 및 그의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경력 5년 ~ 20년	81,413,280	07/23	호주	Bayside Personnel	자동차정비원	경력 2년 ~ 21년	39,198,150 ~ 56,619,550	07/18
미국	Wicked Fashions, Inc.	행정 및 경영지원관리자 (ERP 프로그래머)	경력 5년 ~ 11년	78,945,300 ~ 90,223,200	07/21	중국	중국대기업	전자제품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무관 ~	36,000,000	09/30
미국	에이스테크	로봇 및 그의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경력 3년 ~ 16년	67,844,400	07/16	중국	중국대기업	경영지원 관리자	무관 ~	36,000,000	09/30
멕시코	Ace Tech SA.de.C.V.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경력 10년 ~ 20년	67,844,400	07/16	일본	엔씨재팬	게임 프로그래머	경력 3년 ~ 11년	31,993,500 ~ 73,128,000	12/18
베트남	제조업체 T	해외 영업원	경력 5년 ~ 10년	50,883,300	08/06	일본	엔씨재팬	일반 비서	경력 2년 ~ 6년	31,993,500 ~ 54,846,000	12/17
미국	CJ America, Inc.	제빵원 및 제과원	경력 5년 ~ 11년	50,000,000 ~ 60,000,000	12/31	폴란드	범하판투스 볼란드법인	무역사무원	경력 3년 ~ 10년	30,000,000 ~	08/31
호주	On Duty Panels Pty Lrd	자동차정비원	경력 5년 ~ 11년	46,950,673 ~	07/18	폴란드	범하판투스 볼란드법인	재무관리자	경력 5년 ~ 10년	30,000,000 ~	08/31
호주	On Duty Panels Pty Lrd	수리및정비관련관리자	경력 5년 ~ 11년	46,950,673 ~	07/17	중국	심양금지성광고 디자인유한공사	디자인관련 관리자	무관 ~	27,577,440 ~ 27,768,950	12/31
미국	3D Access Industries	기능관련 종사원	경력 5년 ~ 6년	45,229,600	12/31	일본	주식회사 아쿠타리일리티	웹엔지니어 및 웹프로그래머	경력 1년 ~ 4년	27,423,000 ~ 49,361,400	07/31
호주	Bayside Personnel	자동차도장정비원	경력 2년 ~ 21년	39,198,150 ~ 56,619,550	07/18	일본	CRC SYSTEM 주식회사	웹엔지니어 및 웹프로그래머	신입 ~	27,423,000 ~ 29,251,200	10/30

* 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20을 비롯하여 보다 다양한 해외취업정보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를 통해 확인 가능

Reporter 장한범 ehdrkwa@naver.com Photographer 조혜미

가재 보물 찾으러 우주만물

뜬금없는 물건들은
곳곳에서 등장한다.
포장지의 촌스러운
모델로 보아
1980년대에
제작된 것만 같은
일본의 팬티스타킹은
왜 있는지.



ACB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65-22번지 3층
TEL
010-5630-6699

14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하나도 없다. 여기가 '화개장터'냐고? 아니. 을지로의 <우주만물>이다. 별별 물건이 맥락과 관계없이 진열돼 있다. 한쪽에선 프랑스의 누벨바그 영화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온다. 건너편 포스터에선 예비군 훈련장에서나 볼 법한 북한군이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뜬금없는 물건들은 곳곳에서 등장한다. 촌스러운 포장지로 보아 1980년대에 제작된 것만 같은 일본의 팬티스타킹은 왜 있는지. 또 <보노보노> 비디오 시리즈부터, 읽기만 하면 만리장성도 넘을 것만 같은 탁구 교재, 울트라맨 컵까지 진열된 것을 보아하니, 이곳 물건들은 가히 우주 삼라만상처럼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듯하다. 단순히 피식, 하고 웃음을 자아내는 빈티지 제품만 있는 게 아니다. 근사하고 독특한 사진으로 가득한 수입 잡지들, 그리고 초록 지폐 두 장이면 살 수 있는 구제 옷과 액세서리도 매력적이다. 사장을 비롯한 5명의 친구들은 그간 여행에서 샀거나 원래 갖고 있던 잡다한 물건들을 모아 이 가게를 차렸다고. 오늘은 우주여행 대신 <우주만물>에서 놀아보시라.



잊지 말고
꼭 챙기자

대한민국
최저시급

5,580원!!
2015년 기준

알바가 갑이다

albamon

누르면 알바가 갑이 되는
알바몬 지금 바로 확인하기



covermodel's beauty

표지모델의 인생템

Editor in chief 전아론 aron@univ.me

피부톤 골든
피부타입 건성
특이사항 피부가 하얗다



보기 드물게 하얀 피부를 가진 남자, 선우씨의 아이템은?



Beauty Item >>>

1

퓨어 소블린크림
헬렌박

저는 피부가 많이 건조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은 수분감이 풍부하고 지속력도 좋아요. 가끔 자기 전에 듬뿍 바르는데요, 그러고 나서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기분이 좋습니다.

2

유브이 엑스퍼트 엑스엘
쉴드 SPF50 PA+++
랑콤

백탁 현상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로션 같은 느낌이라 남자에 게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편하게 쓰고 있어요. 화장한 것같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발리는 데다 자외선까지 차단해주니까 굿!

3

퍼펙트
세럼
미장센

기름지지 않고 모발에 윤기가 돌아서 좋아요. 저렴해서 부담없이 자주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촬영이나 방송 때문에 드라이를 많이 하는 날에, 코디누나가 듬뿍 발라주면 왠지 머릿결에 대해 괜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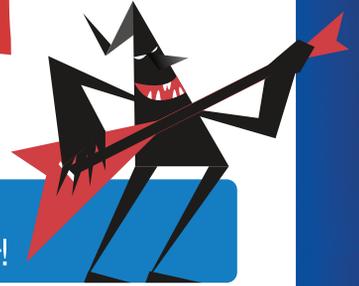
이드라베이스
인텐스 세럼
라로슈포제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외우기 쉽지 않지만... 수분감이 충분해서 얼굴이 촉촉해지면서도, 끈적임이 없어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끈적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CASS

펜타포트 원정대 5기 CASS Blue Rockies 모집



전설들이 온다! 10주년을 맞아 더 특별해진 라인업, 2015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가슴이 뛴다! Cass와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시원한 여름을 즐길 당신을 초대합니다!

펜타포트 원정대 5기 모집! CASS Blue Rockies

음악, 페스티벌, 친구, 캠핑...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스무살의 특권!
Cass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담은 블루 셔머 스토리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모집분야



SNS Rockies

나는 SNS 파워 유저~
카스와 함께 한 모든 순간을 SNS에 좋아요!



Visual Rockies

나는 사진, 영상 프로~
어디든 카스와 함께인 장면을 찰칵



Festival Rockies

나는 파티 플래너~
카스를 즐길 수 있는 무한 아이디어를 팽팡!

★ 일정

- ▶ 모집기간 : 2015. 07. 10(금) ~ 24(금) 오후 6시까지
- ▶ 원정대 발표 : 2015. 07. 30(목)
- ▶ OT 일정 : 2015. 08. 05(수) ※불참시 합격취소
- ▶ 원정대 일정 : 2015. 08. 07(금) ~ 09(일) 2박3일

★ 모집인원

▶ 총 30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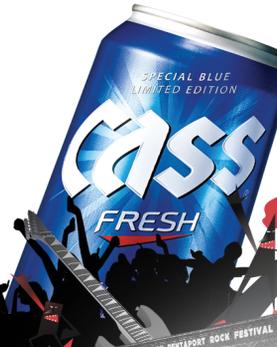
Enjoy the Blue!

“즐기면서, 미션하고, 우정도 쌓고!”

2박3일 카스와 함께 펜타포트에서 동거동락할 사람은 지금 바로!

지원하기 ▶▶▶

cass-bluerockies.kr



Hungry Girl + Thirsty Boy



청순해진 아저씨
프링글스 스위트 칠리



웰치스 라임민트, 망고패션후르츠
탄산에 기쁨이 튀어오른다

18

배고픈
소녀의
간편 음식
탐방기

Hungry
Girl

+
Editor 김슬.dev@univ.me

고백한다. 오늘 편의점에서 프링글스 스위트 칠리 맛을 덩석 들어 계산한 이유는 원래 프링글스 마니아여서, 한국에서만 판매한다는 'Limited Edition' 타이틀에 동해서도 아니었다. 순전히 소녀의 볼터치 같은 핑크색 패키지가 때문이었다. 귀엽게 생겼지만 왠지 사할 것 같았던 콧수염 아저씨가 분홍색 배경 탓인지 너무 청순해 보였거든. 허가 얼얼하도록 짠 여타 프링글스의 맛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스위트 칠리'라는 이름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감자 칩에 칠리소스를 살포시 찍고 있는 패키지 그림과 달리, 통 안에서 반기는 건 라면 수프 비슷한 것을 잔뜩 묻힌 감자 칩들. 약간의 실망감을 품고 입에 넣으니 역시나 바사삭!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서진다. 한국에서만 판다더니 '단짠'의 조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입맛을 연구했나 했나보다. 침샘을 자극하는 짠맛이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하게 느껴지는 달짝지근함이 꽤 중독성 있다. 인상적인 것은 생각보다 입안이 갈끔하다는 것. 나트륨 범벅 과자를 먹은 후 느껴지는 텅텅함이 별로 없다. 감자 칩에 뿌려진 수프도 딱 감자 칩의 절반 정도 양으로, 과한 게 미덕이었던 오리지널 프링글스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 통도, 감자 칩도, 아저씨도 여러모로 청순해진 한정판이다. CU에서 8월까지만 판매.

어릴 적, 나는 탄산의 기쁨을 모르는 몸이었다. 동생은 치킨엔 콜라, 피자에도 콜라, 그냥 먹어도 맛있는 콜라라고 엄마를 졸라냈지만 콜라를 입에 넣으면 어쩐지 단맛이 아니라 알싸하고 맵싸한 탄산이 목을 따끔거리게 할 뿐이었다. 식도 내벽이 두꺼워진 건지 자극에 무뎠던 건지, 지금은 얼음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곧잘 마시지만, 언제까지나 패스트푸드의 넘김을 수월하게 하는 유희유일 뿐. 나에게 탄산 본연의 맛이 기능하지 못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출시된 웰치스의 새로운 맛 라임민트는 좀 다르다. 모히토를 표방하며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 중 가장 모히토의 맛과 유사하다.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런 단맛과 허공에 알싸하게 감도는 민트향에 깔린 부드러운 탄산도 예술이다. 자기주장이 강한 포도의 단맛이 부담스러웠던 오리지널 웰치스를 생각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청량함이다. 그야말로 고급 주스에 가까운 탄산음료랄까. 무엇보다도 시트러스 계열의 음료를 마셨을 때에 남고야 마는 입안의 뽕내, 그러니까 텅텅함도 일절 느껴지지 않는다. 라임민트와 함께 출시된 망고패션후르츠 맛은 비추. 망고보다 자몽에 가까운 산뜻한 향에 흘러 무심코 머금었다가는 와우 껌맛 음료를 흥뻑 맛보게 될지언니.

목마른
소년의
음료와 주류
시음기

Thirsty
Boy

+
Intern 이예나.yen@univ.me

새로운 300ml 텀블러 커피 후디스 앤업카페 출시기념 SNS 앤업카페 포토 콘테스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와 브라질 아라비카 원두를 용드림 방식으로 추출하여 부드러운 바디감과 풍부한 아로마까지 300ml 대용량 컵 안에 담았습니다.



SIZE UP!
TASTE UP!
FEEL UP!

EVENT 1 &UP CAFE 모델에 도전하세요!

앤업과 함께한 사진을 SNS에
#앤업카페모델도전 #앤업카페 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총 3명을 선정해 상금과 광고모델의 기회를 드립니다!

상금과
&UP카페
광고모델
까지!

기간 6월 16일(화) ~ 7월 31일(금)

- 앤업모델 선정 - 상금 100만원 (3명)



EVENT 2 &UP CAFE와 함께하는 인증샷 이벤트!

앤업과 함께한 다양한 인증샷을 #앤업카페이벤트 #앤업카페 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맥북에어, 아이패드 미니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6월 16일(화) ~ 7월 31일(금)

- 전체 베스트 1위 : MacBook Air 11" 128G
- 전체 베스트 2위 : iPad mini3 16G (2명)
- 전체 베스트 3위 : 인스탁스 미니90 네오클래식 (5명)
- 주간 베스트 : 앤업카페 라떼 텀블러 10개 1box (20명)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토리, 페이스북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앤업카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nupcafe.com>



앤업카페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고진

Movie

권선징악을 말하는 동화의 원형은 대체로 진혹하다. 계모에게 뜨겁게 달군 쇠 신을 신는 벌을 내린 백설 공주, 사랑으로 첫갈을 담가버렸다는 콩쥐팥쥐의 잔인함은 모두 착하게 살라는 경고일 테다. 하지만 선행된 악행보다 잔혹한 복수는 권선징악보다 인과응보라 하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마냥 착하고 불쌍한 줄로만 알았던 동화 속 주인공들도 악인의 반역에 올라야 하므로. 독일 전래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영화 <손님>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전쟁 직후, 폐쇄적인 마을에 낯선 손님 우룡(류승룡 분)과 그의 아들이

Intern. 이예나 yena@univ.me

찾아온다.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촌장(이성민 분)은 그에게 쥐를 없애주면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우룡의 피리 부는 재주 덕에 쥐는 사라졌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결국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뒤따른다. <손님>은 인간성을 보전하기 어려운 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배경으로 동화를 끌어와 이 세상에는 완전 무결한 선인도, 명분 없는 악인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존재들

도 없음을 말한다. 모든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인과응보일 뿐. 사람답게만 살면 될 텐데 한 번 결여된 인간성은 회복되기도 쉽지

않다. <손님>의 흐름은 원작 동화와 똑같기 때문에 결말이 쉽게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두려움, 쥐에 숨겨진 '그날'에 대한 비밀 등 판타지 공포물이라는 장르에 걸맞게 물이치는 스릴에 다른 생각을 할 새가 없다. 다만 때로 출몰하는 쥐가 의외의 진입 장벽일 수도.



Editor. 기명균 kikk@univ.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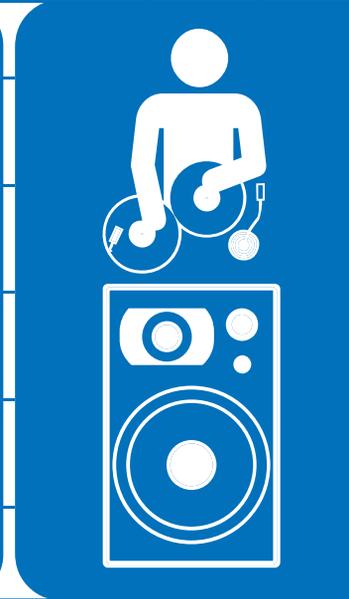
비밀지도가 있는가?

Entertainment

이번엔 '날아라 형들이!' 얼핏 봐선 10년 전 방영됐던 <날아라 숲돌이>의 재탕 같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며 울고 웃던 추억의 프로그램. 그러나 <청춘FC 헝그리 일레븐>에는 스페인 유명 축구팀에 스카우트될 만큼 떡잎이 보였던 강인이도, 어실픈 매력의 승준이도(천사 같던 매니저 연두 누나도) 없지만 이미 한 번 좌절을 맛본 형들의 절실함이 있다. 높은 경쟁률, 집안 사정 때문에 축구를 포기할 위기에 놓인 청춘들, 이들을 돕기 위해 '반지의 제왕' 안정환이 감독을 맡았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K리그 감독직을 고사했을 만큼 애착이 강하다. 그 밖에도 2002년의 주역이 을용과 이문재가 각각 공동 감독, 코치로 나선다. 뽕기예로 전지훈련을 떠난 이들이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오디션 프로그램뿐 아니라, 현실에도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그만큼 한 번의 실패를 극복하기가 힘든 요즘이다. 꿈을 땀뿍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나에게 꿈꿀 자격이 있는가?'를 자문하며 움츠러드는 20대에게 <청춘FC 헝그리 일레븐>이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길 바란다. 맘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SOUND BERRY



2015 사운드베리 페스타

>>>>>>>>> 2nd LINE-UP <<<<<<<<<<

15일

윤하 | 바이바이 배드맨

커피소년 | **클래지콰이**

김필 | 브레드 프로젝트 | 아이엠나트

9와 숫자들 | **스탠딩에그**

짙은 | 루시아 | 낭만유랑악단

파라솔 | 프롬 디 에어포트 | AND MORE...

16일

노리플라이 | 헬로 스트레인저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 **딕펍스**

로맨틱펀치 | **정준일** | 재주소년

옥상달빛 | 올티

러브엑스테레오 | **박시환**

랄라스윗 | 고고보이스 | AND MORE...

7월 22일 | 최종라인업발표, 타임테이블 공개

2015.8.15-8.16 | 여의도 > 63빌딩 컨벤션센터

www.facebook.com/soundberryyfesta

예매 인터파크 티켓

문의 1544-1813



이루펀트 3집 <Man On The Moon>

Music

팬창은 소녀들은 팬창은 소년들을 만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수학의 정석』에 얼굴을 파묻고 살던 열아홉살의 나는, 그런 법칙에선 일찌감치 비켜나 있었다. 좋아하는 남자에 앞에서 애교스럽게 웃지 못하는 나를 탓하면서, 학교의 여신들이 어서 좋은 짝을 만나 왕관을 내려놓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됐다. 서툰 화장으로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던 내 걸엔 이루펀트의 음악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쓴 노랫말이 좋았다.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야 울고 말았다’(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는 소심한 소년, ‘꿈>이 뒤집히면 <꿈>이다’(해에게서 소년에게)던 당찬 꼬맹이. 듣다 보면 난 이 우주에 혼자 던져진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랬던 이루펀트가 새 앨범을 냈다. 타이틀곡은 씨스타의 소유와 부른 ‘심심할때만’. 또 버벌진트와 피타입, 가을방학의 게피 등이 참여한 13곡으로 짝 채웠다. 약간은 낯설다. 어릴 적 수줍고 귀여웠던 남자 사람친구가 훗날 도시남자로 성장한 느낌이랄까. 이루펀트, 언제까지나 끈대가 되길 두려워하는 아이, 덩치만 자란 소년으로 남아주기를. 스웨이 철철 흐르는 래퍼들은 넘쳐나지만, 내겐 언제나 ‘Favorite MC’니까.

Editor: 조아라 ahraja@univ.me

소녀야, 소녀를 위로해줘



어셈블리

Drama

너의 과거는 묻지 않을게 모방과 표절은 한 곳 차이다. 다른 누군가가 이미 만든 대상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두 행위를 구분 짓는 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다. 예를 들어 기성화가가 고흐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 자기 작품이라고 내놓는다면 그건 표절이지만,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이 같은 일을 한다면 그건 창조의 자양분을 얻기 위한 모방이다. 창조의 어머니인 모방은 약자들의 권리다. 그런데 KBS는 결코 약자가 아님에도 여전히 방송 3사에서 ‘따라쟁이’를 맡고 있다. 예능이면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거의 복사기처럼 요즘 잘나간다 싶은 프로를 복제하는 것이다. 이번에 ‘모방’한 건 울 상반기 방영됐던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상위 0.01%의 법률가 집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로 무대를 옮겨오긴 했지만 비슷한 느낌은 도저히 지울 수 없다. 심지어는 서 봉의 언빠 장현성과 윤복인, 양 비서를 연기했던 길해연이 캐스팅되기까지 했다. 아마도 방송국에서 힘깨나 쓰시는 분들의 지나가는 한마디 “우리는 저런 거 못 만드나?”로 제작됐을 이 뻔뻔한 드라마를 누가 썼는지 확인했는데 이런, 대반전. <정도전>의 정현민 작가. 갑자기 정재영, 송윤아, 김서형, 박영규, 성지루, 손병호, 서현철, 임지규, 이원재 등 출연진 라인업도 뽕뽕해 보인다. <정도전> 한마디에 급 기대를 해버리는 나도 참 우매한 대중이다. 따라 하든 베껴든 알 게 뭐야. 재밌은 장편이지!

Reporter: 루세림 shamedonut@gmail.com



07월 15일 밤 10시, KBS에서 첫 방송.



중국어, 참 쉽게 배우려면
교수님보단 교수님을 따르라

중국어 신청만 해도
태블릿PC + 해외여행 0원

함 쉬운 중국어 문정아가 담이다
문정아중국어
 Since 2003
www.no1hsk.co.kr
 상담전화 02.725.2771



바로이제! 워킹홀리데이

문화 체험이 목적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취업만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의 문화와 정서를 체험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여행입니다.

스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정부 지원 제도가 아니라 목적, 비자, 일자리 등 모든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또는 지역별로 협정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체결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국가 및 지역별로 협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Festival
니가 알던 판타지가 아니야

Intern 이예나@univ.me

판타지 영화라 하면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류의 환상동화인 줄로만 알며 “나는 판타지가 제일 좋아”를 외쳤던 과거의 나를 매우 쳐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의 판타지는 감독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은 신인류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인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르다. 물론 비위가 약한 이라면 (도대체 어디서 두 구하는 건지 늘 궁금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문지마 살인마, 얼굴이 개연성인 소시오패스, 피 묻은 교복을 입은 사이코패스 등이 즐비한 시간을 보내는 게 버거울 수 있다. 하지만 시리즈 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는 <명탐정 코난: 화염의 해바라기>가 Bifan에서 가장 먼저 공개되고, 핫하다 못 해 곧 메이저로 넘어갈 듯한 밴드 혁오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공연도 볼 수 있으니 두려워 마라. 워낙 처음이 어렵지 난 사하는 피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들에 곧 익숙해질 테니. Bifan의 한복판에 있노라면 이렇게 신박하고 병맛스러운 영화는 어디서 솟아나는 건지, 대체 나는 지금껏 판타지의 무엇을 알고 있던 건지 반성하게 된다. 부디, 이 성찬을 누릴 기회를 거부하지 말길 바란다.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부천에서.
 일반 예매 6000원



한 줄 영화평

우먼인골드
 감독 사이먼 커티스

B* 깔끔하게 예뻐기로 소문난 맛집, 실제로 맛도 있다. MSG맛.
 Intern 이예나



더 디너
 감독 이바노 데 마테오

A* 신념을 지키는 이기주의자, 가족을 지키는 기회주의자
 Editor 기명균

B* 애들이, 꼭 너희 같은 자식 낳아라
 Editor 김술



10,000km
 감독 카를로스 마르쿠스-마르셋

B* 갑자기 여학연수 간다는 애인에게 보여주면 알아서 정리할걸
 Intern 이예나

A*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고, 또 중요하다
 Editor 기명균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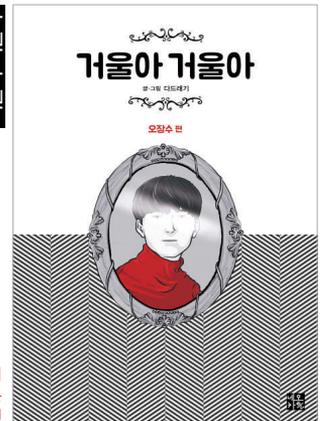
심판 받지 않을 권리

나는 늘 심판자를 자처했다. 속 썩이는 데 일가견이 있는 남자친구들의 이

Editor 김술dew@univ.me

야기를 들을 때마다 “쓰레기네, 당장 헤어 제”라며 거품을 물었다. 내 독설이 답 없는 연인 때문에 팔자가 꼬일 위기에 처한 친구를 ‘구원’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때와 같이 일장연설을 마친 내게 한 친구가 말했다. “그래도 좋아. 좋은 걸 어떡해.”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연인이라면 여짜야 한다는 통념과 의무 이전에, 그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본질을 맞닥뜨린 기분.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고, 사랑의 방식은 두 사람이 만드는 건데 어떻게 제3자가 롤을 만들고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만화 『거울아 거울아』의 주인공 오장수는 스스로 게임을 알면서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3연이나 유지한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한다고 마음대로 아무리 되뇌어 봐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상할 것 없는 커플이지만 가슴은 뛰지 않는다. 장수는 이별의 이유를 솔직하게 밝히지 못해 쓰레기가 되지만, 치기로 취중진담을 뱉어낼 수도 없다.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세상의 심판대 위에 올라 신과 가족,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 겁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수는 거울 앞에 설 때만 진짜 얼굴을 꺼낸다.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남발하는 사람들보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비추주는 거울이 더 편안하니까.

Editor 기명균



저자 다드래기
 출판 네오카톤
 가격 6900원

2015

Smat TV App & Device Contest



Are Ready?

2015 스마트TV 앱 및 주변기기 공모전

▶ 참여대상

-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주변기기 제작 또는 서비스 모델 구축
 - 전국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 개인 및 기업, 팀(최대 4인)별 참여 가능

▶ 참여부문

-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제작
- 스마트TV 주변기기 제작
- 스마트TV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모델 구축
 - ※ 이미 상용화 또는 타 대회 수상작은 제외

▶ 참여주제 : 자유주제

- 상용화된 스마트TV 개방형 플랫폼 타이젠, 웹OS(삼성, LG) 등을 활용하여 작품 개발
 - ※ 예시 : 방송연동형(방송 프로그램 관련 부가정보)서비스 S/W, 독립형(주식, 날씨, 라이프스타일, 민원정보 조회 등)서비스 S/W, 기타(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서비스 S/W, 스마트TV와 연동 가능한 주변기기(IoT, 액세서리, 앱세서리, 웨어러블) 등

▶ 시상내역

- 총 상금 2,250만원(수상작 10점 선별)
 - 대 상(1점) : 상장 + 상금 1,000만원 + 스마트TV(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최우수상(2점) : 상장 + 상금 각 300만원 + 스마트TV(삼성전자상, LG전자상)
 - 우 수 상(2점) : 상장 + 상금 각 200만원(주관기관장상 및 후원기관장상)
 - 장 려 상(5점) : 상장 + 상금 각 50만원(주관기관장상 및 후원기관장상)
 - ※ 시상은 작품의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예정보다 적게 시상할 수 있으며,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BMOI 좋은 경우 높게 평가될 수 있음

▶ 심사절차 및 기준

- 1차심사 : 완성도, 독창성, 활용성 등 항목별 평가(서류심사, 2배수 선별)
- 2차심사 : 독창성, 활용성, 수익성, 난이도, 발표력 등 평가(발표 및 작품 시연 평가)

▶ 접 수

- 기 간 : 2015년 7월 1일(수) ~ 9월 30일(수)
- 접수방법 : 스마트TV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업로드 (홈페이지: <http://www.smarttv-sc.org>)
- 제 출 물 : 참가신청서 및 작품

▶ 일 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7월 1일(수) ~ 8월 7일(금)
- 기획서 및 작품 접수 : 2015년 8월 10일(월) ~ 9월 30일(수)
- 1차 심사 및 결과 발표 : 2015년 10월 초
- 2차 심사 및 결과 발표 : 2015년 10월 중순
- 수상작 선정 및 시상 : 2015년 11월 10일(화)
 - ※ 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작품 개발 및 테스트 시, 본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TV 테스트베드 (<http://www.smarttv-sc.org/html/testbet.html>) 활용 가능
 - ※ 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 한국스마트휴산협회 사업전략본부 김보람 대리, 도철구 본부장
 - 연락처: 070-8233-6454
 - 이메일: bryj321@kashi.or.kr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주관 스마트TV포럼 한국스마트휴산협회
KASHI 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

후원 삼성전자 LG전자 ETRI KETI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정보과학연구원 한국스마트휴산협회 한국스마트휴산협회 한국스마트휴산협회 한국스마트휴산협회



인사이드 아웃

Movie

Reporter 박혜주 phj9003119@hanmail.net

나는 눈물에 인색한 사람이다.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도, 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도, 슬프던 억울하건 분하건 간에 잘 울지 않는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어도 '그냥 메달랐나보지.'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진 <인사이드 아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5개의 감정을

울 준비는 되어있다

컨트롤하는 본부가 있다는 기발한 상상으로 시작된다. 주인공 라일리의 본부는 라일리가 커가면서 겪는 감정들을 기억으로 저장한다. 그런데 어느 날 라일리의 삶이

상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던 기쁨이 골칫거리였던 슬픔으로 인해 본부에서 이탈하게 된다. 라일리가 가족이나 이사 문제로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쁨의 부재로 본부는 큰 혼란에 빠진다. 영화는 기쁨과 슬픔이 본부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라일리의 어릴 적 기억과 그에 대한 감정들을 소환한다. 그걸 보는 관객들 또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인사이드'를 바라보게 된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으며 평평 울었던 기억,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 하루 종일 우울했던 감정... 예전엔 제 기능을 하던 내 속에 있는 슬픔은 이제 기쁨과 소심에 밀려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쭈그러 앉아 있겠구나. 세상에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살면서 항상 기쁘기만 할 수도 없다. 항상 울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Webtoon



소녀의 세계

네, 제가 제 인생의 엑스트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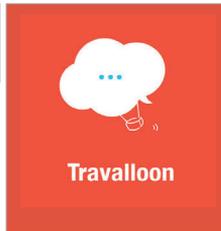
소싯적에 순정만화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은 만화책 한 페이지만 넘겨보고도 누가 주인공인지 안다. 존잘 미소년

Reporter 푸미나 matsumoto_mina@hanmail.net

과 존예 미소녀, 조연으로는 안경(을 벗으면 예쁜) 모범생과 운동을 좋아하는 씩씩이 정도. 그리고 때때로는 얼굴조차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평범한 갈색 머리, 바로 엑스트라다. 어쩌다 한 번 등장했다 사라져서 딱히 이름 붙일 필요도 없는 단역들. 하지만 그 엑스트라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인생에선 주인공인데,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친구들 때문에 저절로 그림자가 생긴다. 폭풍 다이아트로 환골탈태 후 꽃피는 고교생 시절을 꿈꾼 나리도 그랬다. 자신과 비슷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며 적당히 혼내 소리도 들어보고, 남자친구도 사귀어 줄 알았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예쁘기로 소문난 애들과 점심 먹고 함께 다닌다. 이 친구들은 날 귀찮게 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날 금방어에 붙은 똥 가루 취급한다. 아, 오징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대체 어디서 나냐 했더니 나한테서 나고 있었다.

App

트래블론



Editor 기명균 kkkk@nvt.me

나는 여행보다. 여행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여행을 할 줄 모르는 바보. 공허한 다짐의 3대장이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술 끊어야지'라면 난 여기에 하나가 추가된다. '여행 가야지...' 타고난 게으름으로

대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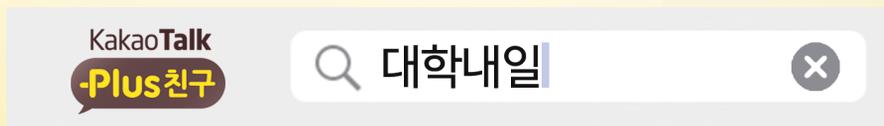
여행 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당연히 여행 가서도 어버버 더듬는다. 든든한 트래블메이트도 없으니 가이드북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가족이나 짐 싸는 요령 없는데 두꺼운 책까지 챙겨야 하나? 무거운 책 대신 여행 애플리케이션 '트래블론'을 다운받아 운신의 폭을 넓히자. 트래블론에는 놀라게도 국내 유명 출판사의 가이드북이 나라별로 수록돼 있어 여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약 하나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약장수의 말을 빌려 단언한다. 이 앱 하나면 모든 여행 올림종이 사라질 것이니, 만병통치약 한번 잡숴봐.

진정너가 주는 꿀정보! 남들이 얻은 후엔 이미 늦었다!

복학생이 살아남는 법
취업정보 대학생 필수 어플 10선
집중력 상승팁 시험기간 대외활동
공모전 맛집 선후배관계
대학생 재테크 독서리스트 추천
대학생 정신번쩍 어록
최근 트렌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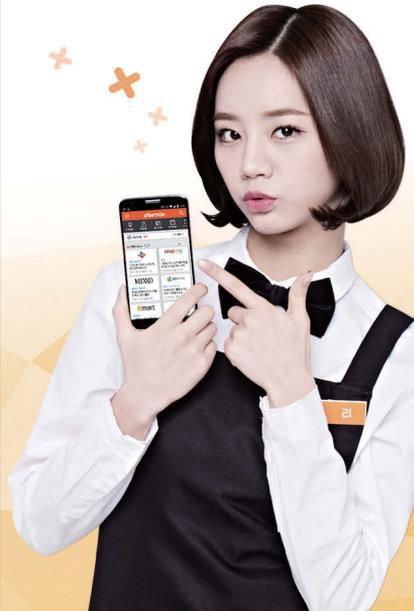


76,300명은 이미 너보다 앞섰다.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에서 대학내일을 검색해 보세요.

알바 끝판왕! 알바몬 앱



AA 스마트앱 어워드 2014
APP AWARD 14 FINALIST
취업정보분야 최우수상



albamon

Concert



Reporter 김홍진 khjw714@daum.net

영화는 보통 모든 이야기를 2시간 내로 집약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생략되곤 한다. 그래서 영화 뒤에 깔리는 음악이 각 캐릭터의 감정과 못다 한 이야기를 대신한다. 영화음악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관객들에게 각인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특히나 판타지 장르의 영화는 상상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영상미와 어울리는 영화 음악의 역할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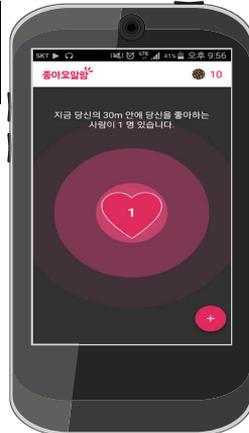
그래서 영화감독과 음악감독의 호흡이 중요하다. 서로의 의견이 잘 조율되어야 모

두가 만족하는 영화 한 편이 탄생할 수 있다. 영화감독 팀 버튼과 영화음악가 대니 엘프만은 30년 동안 함께 〈가위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유령신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주로 판타지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다. 대니 엘프만의 음악은 영화 속 곳곳에 자리 잡아 팀 버튼이 찍어낸 신비로운 영상을 완성한다. 2013년 런던에서 그 음악들을 모아 연주하는 영화음악 콘서트가 시작됐다. 이번엔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이다. 그들이 함께 작업한 열다섯 편에서 흘러나왔던 영화음악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재현되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 음악이 쓰였던 영화 장면까지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니 마법 같은 2시간이 되겠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VIP석 14만 3000원,
R석 12만 1000원,
S석 9만 9000원,
A석 8만 8000원,
B석 6만 6000원.

App

Reporter 정희영 rmsid182@naver.com



사랑한다면, 하루 세 번 천계영 작가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의 세계

에서, 사람들은 어플을 통해 교제를 시작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에 있을 경우 알람이 울린다고 해서 '좋아하면 울리는 알람', 줄여서 '좋알람'. 어딜 봐도 그 '좋알람'에서 착안된 것으로 보이는 어플 〈좋아할 알람〉은 웹툰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신비한 기술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저, 어플을 깔고 좋아하는 사람을 등록하면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한다고 '등록한' 사람이 몇인가를 알려주는 SNS일 뿐. 따라서 상대가 어플을 깔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실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플에는 초대 기능도 탑재돼 있다. 그 기능을 사용하면 자신이 지정한 상대에게 어플 설치경로가 적힌 익명의 문자가 전송된다. 단, 최근 문자에 URL을 삽입한 피싱 사기가 성행한다니 단순히 문자가 왔다고 김칫국 마시지 말 것. 절대로 괜히 심술나서 그러는 거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대학내일을 **공유** 하고 싶습니다.



신청 방법

www.naeilshot.co.kr/subscription 접속 후 신청

신청 비용 (우편료)

일반, 대학생 6개월
1만 5천원

※ 현역 군인이나 동아리 단위 신청은 특별할인, 6개월 1만원 (배송지를 동아리방 및 군부대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문의

02-2287-2300 / verygood@naeil.com

**대학내일
정기구독**

대학내일은 개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담되지 않게 **배송료만** 받을게요.

**개인 배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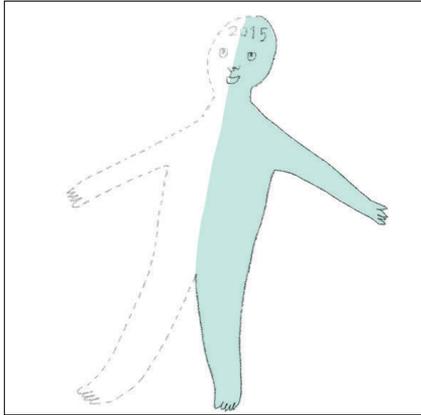
1만
5천원

6개월

Event:

Editor in chief 전아론 aron@univ.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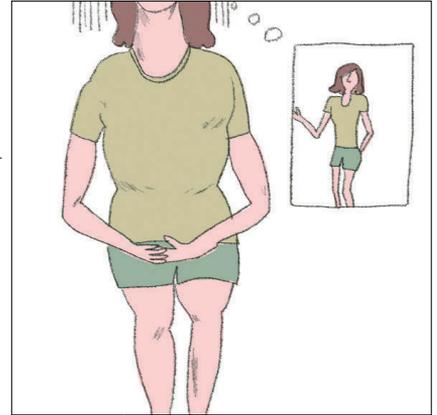
Illustrator 전하은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015년도
반절이나 지났을 때
김현아님

당신에게 술이 간절한 순간은?

어제도 마셨고, 그저께도 마셨지만, 술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오늘 '또' 생긴다. 나만 이런 거 아니지? 대학내일 페이스북 절친(!)들에게 '술이 간절한 순간'을 물어봤다. 역시... 나만 술레기(?)가 아니었어...



현실을
자각했을 때...
또록...
석진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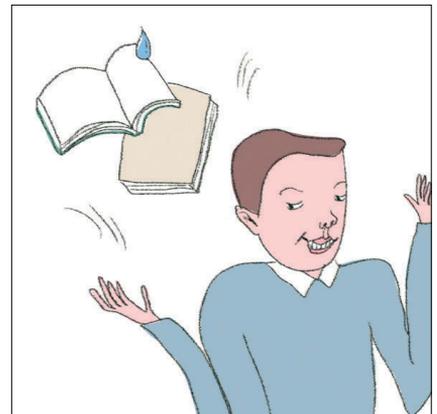


전행결과조회
귀하와 같은 인재를
뽑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귀하와 같은 인재를
뽑지 못해
죄송하대!!
오하리님

시험 치기 전날,
공부를 어느 정도
해냈다는 착각에
사로잡힐 때?!
최하늬님

오티 때
여장하기 전에
김태현님





나는 너에게 몇 점 짜리야?

Webtoon

사라세니아

봉주르 / Daum
2011년 8월 13일 - 2012년 1월 29일
37부작 / 무료

남들의 연애로 먹고사는 사람은? '곽정은'과 '듀우' 모두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출제자의 정답은 타로카드를 해석하고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선생님'들이다. 손목에 찬 시계로 심박수를 체크하는 2015년에도 복채 거래량은 줄지 않는다. 애인이 없을 땐 '언제쯤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나요?', 애인이 있을 땐 '이 사람이란 언제쯤 어디에서 어떻게 되나요? 혹시 서로 잘 안 맞나요?' 내가 그 '선생님'이라면 건강, 진로에 대한 질문보다 연애 상담이 가장 힘들 것 같다. 인간은 그 자체로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가. 게다가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 10배 더 복잡해진다. 그 복잡한 상태의 두 사람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주변의 친구, 가족, 돈(심지어 드라마 주인공까지) 등 수백 수천 가지 변수가 더해진다. 이걸 카드 몇 장 뒤집어 보고 맞다고? 진짜 귀신같이 맞았다고? 그럼 인정. '선생님'들이 남의 미래를 보고 부적을 써주시느라 바쁠 때 《사라세니아》의 주인공 진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미래를 본다. 진호가 사람이나 사물을 스캔하면 그 위에 숫자가 뜨는데, 수의 높고 낮음으로 자

신에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예측할 수 있다. 몸에 나쁜 탄산음료가 -70이라면 과제를 도와줄 친구 머리 위에는 +15가 뜨는 식. 항상 더 높은 숫자를 선택하며 무난하게 살아온 진호에게 두 사람이 나타난다. 자꾸 눈길이 가는 '귀여운 애' 연속이, 마주칠 때마다 짜려보는 '홍터 난 아르바이트생' 종진. 둘의 공통점은 머리 위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모험도 고민도 없이 숫자에 의지해 살았던 진호는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불안을 쉽게 떨칠 수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진호의 연애에는 설렘이 더해졌다. 중반까지만 해도 진호의 능력이 부러웠다. 숫자가 있으면 새벽까지 잠 못 들게 하는 고민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러나 종진의 말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숫자가 보여주는 '나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불확실하다고? 심지어 손해 볼 것이 확실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면, 인정.



2015년 최저임금

시금 5,580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중에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함

albamon

Man on Fire, 2004 맨 온 파이어

감독 토니 스콧

출연 덴젤 워싱턴, 다코타 패닝

Review 김리뷰의 문화컬처 Kim

32



scene #1

맨 온 파이어. 어째서 '불타는 사나이'로 로컬라이징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한 영화 제목이다. 「대학내일」에서 웬만하면 최근 영화 리뷰하곤 했는데, 월말이라 돈이 없어서 영화관에 갈 수 없었던 관계로 나온 지 10년 넘는 영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면 좋겠다.



scene #2

'유약한 여자아이와 존나 짱 세고 무서운 아저씨'는 영화에서 비교적 오래 써먹힌 소재 중 하나인데, 가깝게는 <아저씨>, <테이큰>(이 경우에는 부녀 관계다) 부터 94년의 <레옹>이나 76년의 <택시 드라이버>까지 찾아볼 수 있다. 무서운 범죄 집단에 납치된 여자 아이를 더 무서운 아저씨가 구하러 가는, 뻔하다면 뻔한 각본인데...



scene #3

시대 불문, 뻔한 영화가 매번 나와서 뻔하게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면 이런 류의 영화가 사람들에게 사랑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든다. 약자의 상징인 어린 여자, 거대한 악의 무리와 그걸 소탕하는 일당백 액션! 느와르, 감동, 카타르시스와 모종의 철학까지... 잘만 만든다면 이만한 소재도 없다. 좀 고리타분해도 AK-47은 아직도 최고의 무기가 아닌가.

단지 <맨 온 파이어>가 상기한 영화에 비해 차이점이 있다면, 주인공이 NBA에서 덩크 꽃을 것 같은 파워 흑형이라는 것. 촬영 당시 고작 열 살이었던 여러여리 다코타 패닝과 딱대 찌는 덴젤 워싱턴이 나란히 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오묘한 느낌마저 든다.

scene #4



게다가 '복수'와 '정화'에 대해 비교적 남다른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다. 단순히 쓸어버리기만 한다면 진삼국 무쌍이랑 다를 바 없다. 총알 한 발도 흑인의 소울과 감성을 담아 정성스럽게 쓰는 듯한 워싱턴의 메소드 연기는 형용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scene #5



단순한 액션과 정석적인 스토리였다면 리메이크만 못한 평가를 받았겠지만, <맨 온 파이어>는 오마주와 창조 의 어떤 중간점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명확히 했다는 느낌이다. 좋은 액션 영화이면서 훌륭한 스릴러, 화끈한 복수물까지. 이 영화를 수식할 수 있는 말은 실로 많다.

scene #6



웬지 수습하지 못한 떡밥이 있는 것 같지만, 영화 말미에는 '아무래도 상관없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 더 궁금하면 원작 소설을 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음악과 함께 유유히 올라가는 엔딩 크레디트를 보면 된다. 그래도 이왕 볼 거면 돈 주고 받아 보자. 공짜로 받아서 보는 영화는 무게도 감동도 가벼운 법 이니까.

scene #7





Culture



한국 영화는



〈조선 명탐정: 사라진 놈의 딸〉, 〈악의 연대기〉, 〈스물〉, 〈소셜포비아〉
〈차이나타운〉, 〈오늘의 연애〉, 〈극비수사〉, 〈연평해전〉

올 상반기 개봉한 한국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겨 돈을 번 영화는 단 8편

안 돼!

관객 점유율은 42.5%로 사상 최악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게 한국영화 위기설이지만,

이번엔 좀 짚고 넘어가자

Editor 김슬 dew@univ.me



한국영화, 왜 안 됐는 데?

영화의 질이 관객 수와 비례하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해서 좋은 영화, 넘지 못했다고 나쁜 영화인 것도 아니다. 다만, 외화가 한국인들의 심장을 저격할 동안 우리 영화계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거지. 2015년 상반기, 한국영화가 안 된 6가지 이유를 생각해봤다.

Reporter 김효진 문미나 박혜주 류새힘 정하영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SNS 친구들의 티켓 인증샷으로 바뀐 지 오래다. 영화 제목이 달린 해시태그가 많아질수록 궁금증이 든다. 나아가 SNS에 영화 관련 패러디물이 우후죽순 떠돌아다닌다면 그 영화는 하나의 유행이 됐다는 뜻. 올 상반기, <킹스맨>과 <위플래쉬>,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등의 외화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수많은 2차 저작물들이 쏟아졌다. 남들이 다 본 영화를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다. 그 유행을 국내 작품이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

강력한,
너무 강력한
해시태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투자자들은 돈이 안전하게 회수되길 원한다. 투자자본의 안전한 회수, 즉 가장 쉽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흥행에 성공한 작품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올해 할리우드는 <쥬라기 공원>, <터미네이터>처럼 오래된 시리즈물을 꺼내왔고,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데 한국에는 <매드맥스>처럼 리부트할 수 있는 작품이 없었고, <어벤져스>처럼 크고 화려한 스케일을 구현할 만한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장르가 답습되기 시작했다. 물론 장르물 제작 자체는 부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까다로운 관객들은 새로우면서도 익숙한 걸 좋아하니까. 문제는 영화 시장의 파이가 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영화계에는 레퍼런스가 매우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추억 팔이는 <씨나>, 사극은 <방자전>이나 <광해>, <관상>, 느와르류는 <친구>, <비열한 거리>와 비슷한 식. 그러다보니 장르가 아니라 특정 작품의 모방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흥행에 실패한 <씨시봉>, <간신>, <순수의 시대>, <강남1970>처럼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관객은 익숙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원한다. 이미 봤던 작품과 유사한, 완성도 떨어지는 작품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답습하잖아,
자꾸



배급사의 눈치 싸움

배급사들에게 방학과 휴가가 겹치는 여름과 겨울은 전쟁 같은 계절이다. 관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은 완성도라면 성수기에 개봉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요계에서 SM, YG, JYP가 서로 아티스트들의 컴백 시기를 재고 따지며 눈치 싸움을 하듯 영화계에서도 CJ, 롯데, 쇼박스 가 각자의 영화 개봉 시기를 두고 눈치 보느라 바쁘다. 각 배급사들은 성수기를 위해 자신 있는 카드를 숨겨놓을 뿐 아니라, 상대 배급사에서 흥행이 보증된 카드를 내놓으면 몇 번이고 물러선다. 비성수기에는 비교적 자신 없는 영화를 내놓고 흥행할 영화들은 모습을 더 감추게 되는데 외화까지 몰려 드니 상반기 한국영화의 흥행 결과가 암담해질 수밖에.



1000만 영화가 되기 위해선 좋은 퀄리티 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하다. 바로 스크린을 독점해야 한다는 것. 올해는 그 공식을 <어벤져스2>가 이어갔다. 개봉 첫 주말부터 한국 전체 2281개의 스크린 중 80%인, 1800개 이상의 스크린에서 <어벤져스2>를 상영했다. 개봉 4주 차에도 독심 있게 1200개 이상의 상영관을 독점했고, <어벤져스2> 개봉 시기에 용감하게 나선 <약장수>, <반짝이는 박스 소리> 등 한국 영화를 포함한 스무 편의 영화들은 용기가 무색하게 고작 400여 개의 스크린을 나눠 가졌다. 이는 사실 작년 한국영화 <명량>이 1587개의 상영관에서 7963회 상영되며 역대 흥행 1위작으로 올라섰을 때에도 논란이 됐던 문제이다. 지긋지긋한 스크린 독과점이 이번엔 외화인 <어벤져스2>에서 이루어지며 한국영화에 타격을 준 것이다.

지긋지긋한 스크린 독과점

로코는 이제 별로

10년 전, '로코'는 영화계의 효자 종목이었다. 이제는 빼박 어른이 된 문근영이 열연한 <어린 신부>는 300만을 넘기며 당시 한국영화 흥행 3위에 들었고, <미녀는 괴로워>, <동갑내기 과외하기>, <엽기적인 그녀> 등 걸출한 로맨틱 코미디들이 2000년대 초중반을 강타했다. 하지만 요즘 로코의 위상은 어떤가. 올 상반기 <오늘의 연애>만이 100만을 넘었을 뿐, <위험한 상견례2>와 <연애의 맛>은 40만과 20만이라는 처참한 관객 수로 막을 내렸다. 흥행뿐 아니라 실제 상영 스크린 수도 점점 줄고 있는 추세. 예전엔 잘나가던 장르조차 날개가 딱 꺾여버렸으니, 한국영화의 부진에 돌 하나 더 얹은 셈이다.



+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부터 시작된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인들 간의 갈등이 한국영화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시의 영화 <다이빙 벨> 상영 금지 요구를 부국제가 무시하고 상영한 것을 빌미로 영진위가 올해 부국제 예산을 기존 14억 6천만원에서 약 40% 감소된 8억으로 결정한 것. 영진위는 부국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 주장하지만, 영화계는 부국제 2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갑작스런 결정은 <다이빙 벨> 상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다양성·예술 영화지원사업을 영진위가 신청한 한국 독립영화 24편을 상영할 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해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이빙 벨> 같은 영화는 절대 상영될 수 없고 '다양성'영화 임에도 다양한 영화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싸우다간 언제 '진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싸울 때냐고요.

싸우다 '진흥'은 언제 하나

9천원. 영화 티켓 값이 한 끼 식사에 들어는 돈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고르는 기준에 '본전 뽑을 수 있는 영화'를 들여놓게 됐다. 그런 과정에서 스토리가 괜찮아도 영상미는 그저 그런 영화들은 "집에서 VOD로 보지 뭐" 하며 탈락, 포스터만 봐도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것 같은 영화들은 "명절 특선영화로 즐기자게 하겠네" 하는 이유로 탈락된다. 그렇다면 선별 과정에서 살아남은 영화는 무엇일까. 바로 홍보 문구마다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영화'라는 수식어가 붙는, 블록버스터 장르다. 화려한 영상미와 귀를 때리는 사운드 속에서 정신없이 두 시간을 보내고 나면 '티켓 값 하는구나' 후회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블록버스터를 많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아쉽지만, 막강한 자본력의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은 발전 중인 한국형 블록버스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슬픈 현실...

돈 값 하리구

Otaku's map: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에는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CG로 등장한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활동 때문에 매우 바빴기 때문. 아널드 없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는 -ing

터미네이터의 배급사 파라마운트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제작 전에 이미 6, 7편 제작을 확정 지었다. 2019년엔 1편의 감독인 제임스 캐머런에게 판권이 돌아간다고.

시작은 B급

아널드 슈워제네거도, 제임스 캐머런도, 터미네이터도 초짜이던 그 시절, 아무도 기대 않던 B급 영화가 A급 흥행을 이뤄냈다

I'll be back
터미네이터 시퀀스로 셀 팔기



퍼시픽 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괴물에는 자이언트 로봇!

인간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으니까. 엑스 마키나



채피

초딩 때 <A> 보고 눈물 짙게 흘렸던 당신에게 바치는 선물

02

사람보다 매력적인

로봇 영화 모아 보기

01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Editor 김슬 dew@univ.me



03

역대급 미녀 사라 코너
에일리아 클리크의 필모그래피

클리셰라도 좋아. 로큰롤 소년들의 음악을 더 찌릿하게 만드는 상큼한 소녀라니.



스파이크 아일랜드

알고보니 드라마 거장

앨런 테일러 감독의 화려한 연출작

04



매드 맨 시즌1

1960년대 광고계를 리얼하게, 더럽게 현실적으로 그려낸 드라마

정치 드라마는 발암이란 편견을 버려. 숨 막히는 남자들의 파워 게임

보드워크 엠파이어 시즌2



독이 든 생배, 마블 영화도 거뜰해!
토르: 다크월드



떨바보 주드 로의 딸 역할
돔 헤밍웨이



네, 그 여자예요.
금발의 미모 담당 옹알마 왕좌의 게임

중국어 신청만 해도 해외여행 0원! 태블릿 100% 증정!

왕 신은 중국어 문정아가 됩니다 문정아 중국어

Editor 조이라 ahrajo@univ.me

Photographer 조해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검은 그림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
검은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내가 알던
학교는
이게 아닌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학교로 보였어?

살고 싶다면, 하지 마

여름에는 공포영화가 딱이라고? 오늘 밤은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멀리 갈 것 없다. 공포는 바로 당신 곁에 있으니까.

Editor 조이라 ahrajo@univ.me

Reporter 김지희

Photographer 조혜미

물소리를 따라가지 마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A양

우리 학교가 생긴 건 25년 전쯤이야.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전까지 이곳에는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있었지. 미술원은 원래 안기부 건물이었고, 영상원은 새로 짓기 전까지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해서 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꽤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따르면 지하 3층과 4층에는 물고문에 쓰이던 수조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건물 복도를 걸을 때면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온대. 이 건물은 결국 무성한 소문을 뒤로 하고 몇 년 전에 철거됐지만, 어딘지 모르게 소름끼치는 기분은 어쩔 수 없어. 또 우리 학교 뒤편엔 예전에 군용 차량들을 주차해놓던 수송대가 있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땡 뚫린 공간이지. 지금은 미술원 학생들이 쓰고 있지만, 가끔 그곳에선 큰 트럭에서 날 법한 윙윙거리는 엔진 소리가 들려와. 너도 알겠지만, 지금 그곳에 큰 트럭 따위는 없어. 승용차 뿐.





막차 타지 마 H대입구 지하철역

H대 경영학 C군

지난해 웹툰 <옥수역 귀신>을 본 대학생이라면 막차 타기가 째깍했을 거야. 막차를 기다리던 남학생을 철도선으로 끌어내린 피투성이 손, 핸드폰 액정을 뚫고 나올 것처럼 당신의 눈앞에서 꿈틀거리던 그 창백한 손을 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선 웹툰이 아닌 실화일지도 몰라. 밤 11시 40분쯤에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 때문이지. 학교 근처 지하철역에서 몇 년 전 한 여학생이 11시 40분 무렵 지하철에 투신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거든. 소문에 따르면 그 여학생이 사귀던 남자가 바람을 피웠대.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던 거지. 여전히 그 남학생을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는 것일까?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지하철역에서 피투성이의 여성이 자주 목격되는 바람에, 사건 다음 학기엔 그녀를 추모하는 제사가 치러졌다고 해. 물론 근거 없는 소문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조심하라고, 취한 채 막차를 기다리는 당신의 등을, 그녀가 선로로 떠밀어버리면 어떡해?

혼자 남지 마 서울여대 누리관 7층

서울여대 미디어학 B양

우리 학교 학생누리관은 'ㄹ' 자 형태의 건물이라서 이쪽에서 반대편 복도가 잘 보여. 가운데가 뿔 뿔려 있고, 그 옆에 복도와 계단이 있거든. 동아리방의 문도 유리문이라 밤에는 더 잘 보이지. 7층엔 동아리방이 몰려 있어서, 방학 때나 방과 후에도 사람이 꽤 드나드는 편이야. 밤에 혼자 동아리방에 남으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갑자기 어두운 복도에 불이 켜진다면 그쪽으로 가지 마. 화장실 거울에 누군가가 비치더라도 너무 놀라진 말고, 왜냐하면 이상한 일이 종종 있었거든. 동방에서 유리창 너머의 반대쪽을 볼 때, 검은 실루엣이 보이기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가보면 아무도 없었어. 또 밤에 혼자 복도를 걷다보면 뒤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 취업이 안된데다가 연인에게 버림받은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학교를 떠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 장마철이면 바람소리도 귀신 소리처럼 들려서, 나도 늘 친구랑 짝지어 다녀.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연주회 준비할 땐 이 귀신을 보면 연주회 대박 난다는 설도 있어.

새 여자의 오싹한 하루

Editor 조이라 ahrajo@univ.me
Reporter 김지희
Photographer 조혜미



며칠 동안 사람들은 학생회관의 물맛이 이상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옥상 물탱크에서 남자아이가 발견됐다. 서울 소재의 한 여자대학에서 십수 년 전 일어난 일. 그날 이후 6층 복도에선 어린 아이가 종종 목격됐다곤 한다. 그래서 에디터와 학생리포터, 사진리포터가 직접 학교에 갔다. 소년을 만나러.

문이 갑자기 닫혔다

햇살이 따사롭던 주말 낮 3시 30분. 공포체험을 해보자는 나의 제안으로, 사진리포터와 학생리포터가 서울 시내의 모 여대 정문 앞에서 모였다. 이 학교엔 지어진 지 몇 십 년 된 학생회관이 있다. 주로 동아리방으로 쓰이는 이곳에선 종종 아이의 귀신이 목격된다고 한다. 또 동아리방에 앉아있으면 유리창 너머로 누가 보는 것만 같다는 제보가 들어온 상태. 귀신이 목격됐다는 그곳은 학생회관 6층의 너른 강당으로, 학기 중엔 연극부의 공연 무대로 쓰인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사진이 잘 찍힐까요?” 카메라를 든 사진리포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공포 사진이라면 밤에 찍는 게 좋죠. 지금은 너무 밝아요.” 하지만 학생회관에 들어서자 생각은 달라졌다. “꽤 어둡네요.” 밝은 여름이었으나 안은 서늘했다. 흥분된 목소리들이 조용해졌다. 강당은 꽤 컸다. 200석은 족히 될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문이 닫혔다. 놀란 우리들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복도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바람 따위는 들어올 리 없었다는 얘기다.



거울 속엔 아무도 없었다

깨진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 속 내가 튀어나와 나를 덮친다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마침 우리는 무대 위에서 을씨년스럽게 나뒹굴고 있는 전신 거울 한 개를 발견했다. 왜 이런 곳의 거울에는 꼭 금이 가 있는 것일까... 상념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사진을 찍기로 했다. 미지의 존재는 사람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카메라 렌즈의 힘을 빌릴 계획이었다. 가벼운 학생리포터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사진 속 그녀의 전신을 보며, “와! 진짜 무섭대!”라며 웃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다시 찍어보기로 했을 때, 사진기자가 고개를 가웃거렸다. 같은 각도로 같은 위치에 섰지만, 거울엔 전신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 찍힌 사진을 보니 거울은 비어 있었다. 우리 어디서 찍었지? 맨 처음 카메라에 찍힌 그녀는 정말 그녀였던가.

고개를 숙였으나 그림자는 그대로였다

‘고스트레이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했다. 주변에 귀신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앱이다. 강당에 들어서자 핸드폰엔 빨간 점 3~4개가 뜨기 시작했다. 어라, 빨간색은 가장 악한 귀신이라고 했는데, 찜찜한 마음을 뒤로한 채 강당 깊숙이 들어갔다. 이제는 미지의 존재를 기다릴 때. 암막커튼을 치고 조명을 끄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는, 소음으로 오돌토돌해진 세 여자의 팔뚝만이 남았다. 스마트폰 플래시에 의지하면서 다시 한 번 스티브 잡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다 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학생리포터가 얼굴 아래에 플래시를 대고, 고개를 숙였다가 들기를 반복했는데, 벽에 비친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문과DNA를 타고난 과학 바보인 나로서는, 누군가가 그녀의 그림자를 연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리고

편집부엔 아무도 없었다

미스터리(mystery)와 히스테리아(hysteria)를 합쳐 만든 「미스테리어」는 ‘미스터리로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구어다. 그러나 마니아들끼리의 소모임을 열 생각은 없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스터리로 즐기던 사람들, ‘이야기’ 자체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 한다. 잡지 제작을 전담하는 건 김용언 편집장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를 즐길 수 있도록 그녀가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동안, 편집부엔 아무도 없었다.

「미스테리어」 김용언 편집장

SNS에서 웬만한 베스트셀러 못지않게 「미스테리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 서점에서 문학 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데요. 미스터리 마니아들이 힘써주신 것 같아 기쁘기는 한데, 최대한 냉정해지려고요. 창간호는 언제나 프리미엄이 붙어요. 내용에 상관없이 창간호만 모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2호부터는 그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야겠죠. 이번엔 창간호라 부록에도 힘을 많이 썼잖아요. 그 덕도 많이 봤어요.

타블로이드 이미지로 만든 엽서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할 줄은 몰랐어요. 한정판이라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꽤 되고,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요? 예전에 프랑스에 있는데 30-40년된 영화 포스터를 엽서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오히려 도시 풍경보다 더 마음에 들어서 여러 장 사봤었어요. 또 미스터리 관련 작업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면 옛날 잡지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혼자 보기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엽서로 만들었죠. 일단 내가 갖고 싶고.(웃음) 이미지가 100개 찾는 데만 3주 걸렸어요.

「미스테리어」 창간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주로 잡지사 기자였어요. 영화지 쪽에서 일을 하다가 「판타스틱」이라고, 2년도 못 채우고 폐간된 비운의 장르 문학 잡지의 창간 멤버로 참여했어요. 직전에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서 서평섹션 팀장으로 일했어요. 「미스테리어」 제안을 받고 작년 가을부터 합류하게 됐죠.



YONGEON KIM

미스터리 소설을 단행본으로 만들 때와는 접근 방식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소설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획 기사나 리뷰도 함께 실는 잡이이기 때문에 소설 외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완전 하드한 마니아를 타깃으로 하자면 폭이 너무 좁아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보다도 많이 아니까요.(웃음) 그래서 원래 소설을 좋아하는데 미스터리에도 약간 관심이 있는, 소위 일반 독자들까지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그러다가 어중간해질 위험도 있는데, 최소한 한 꼭지씩은 관심을 갖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성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미스터리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재밌는 콘셉트의 잡지가 나왔다가 관심이 생겼거든요. 표지도 강렬했고요. 네, 디자인에 욕심을 많이 냈어요. 신진 디자이너한테 외주를 맡겨 진행했거든요. 근데 기존 틀에서 많이 벗어난 디자인이다보니 호불호가 좀 갈려요. 사실 욕도 꽤 먹었고...(웃음) 우리에게 익숙한 잡지의 포맷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면 보여주는 방식도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저희도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독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건데요, 독자 여러분도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스터리아」라는 제목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나요?
아뇨, 다른 편집부원들한테 아이디어도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딱 들었을 때 미스터리가 떠오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막연히 찾다가 'Urban Dictionary'라고, 번역할 때 유명한 미국 속어사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딱!

영화, 드라마, 웹툰에서도 미스터리가 많이 활용되는데 미스터리 '소설'에만 있는 매력은 뭘까요? 소설로만 표현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영화 같은 경우, 제작비나 배우 캐스팅, 2시간의 러닝타임 등 제약이 많은 매체잖아요. 그래서 압축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볼거리 위주로 편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잦은 것 같아요. 드라마에는 심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소설은 자유롭죠. 또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미스터리를 표현하기에도 소설이 가장 적합한 매체고요.

〈설록〉이나 스릴러 영화들이 흥행하듯 미스터리라는 분명 대중성을 가진 요소인데, 소설에만 유독 '마니아'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게 불만이에요. 뉴스나 기사를 보면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사건이 없잖아요. 돈, 권력으로 유아무야 흐지부지... 그래서 악인이 처벌받는 미스터리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상물을 즐기는 만큼 소설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텐데 좀 아쉽죠.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분명 매력을 느낄 만한 지점이 미스터리 소설에 있거든요. 「미스터리아」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니아가 아닌 「대학내일」 독자들에게 미스터리 작품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미스터리엔 취향을 많이 타서 이런 거 어려운데... (오랫동안 고민) 입문자라면 유명한 작품을 위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나,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유명한 단편집을 위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얼룩 끈」, 「붉은 머리 연맹」 같은 것들? 또 요즘엔 일본 애니메이션도 많이들 보니까 미야베 미유키도 괜찮겠네요. 「모방범」, 「낙원」은 너무 두꺼우니까 「화차」부터. 어쨌든 처음이라면 우선 공인된 걸작부터!

Interview:

Editor 김슬 dew@univ.me
Photographer 박시열

Boys Republic



소년공화국

46

네버랜드 말고 여기

아이들은 늘 소년이길, 소녀이길 요구받는다. 네버랜드를 훤히 날아다니는 영원히 늙지 않는 피터팬처럼. 우리는 가끔 후크 선장처럼 피터팬을 미워한다. 힘든 세상 참 쉽게 산다고, 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소년공화국'이란 이름을 가진 다섯 명의 청년이 내 앞에 앉았다. 하나둘 털어놓는 그들의 이야기는 네버랜드의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었다. 그냥 지금 여기,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위의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였다.

아이들은 본인의 이름 앞에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붙이잖아요. '불꽃 카리스마 민호'같이, 소년공화국의 소개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민수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공화국에서 섹시 와 시크를 맡고 있는 '섹시크' 민수라고 합니다. **선우** 전 원래 데뷔 초에 '왕자' 이런 거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웃음) **수웅** 저는 소년공화국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수웅입니다. **원준** 팀에서 꿀성대를 맡고 있는 원준입니다. **성준** 물음표를 맡고 있는 성준입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웃음)

팬들한테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팬클럽 이름은 '로열 패밀리'고요.

원준 저희 팀 이름 자체가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팬들 아니면 없는 나라니까, 팬들을 귀족처럼 대우하자고 해서 로열 패밀리라고 지었죠.

'역조공'이나 이벤트를 많이 한다던데, 팬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뭐예요?

원준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이벤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뭘 같이 먹거나, 팬들 졸업식 때 몰래 찾아가서 사진 찍어주기 같은 거요.

유투브에 '소년TV'뉴스라는 자체 리얼리티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각 멤버가 PD가 돼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책임지는 형식이 인상적이에요.

원준 자기가 PD일 때는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적인 구성에도 의견을 제시해요.

'이 편을 보면 나에게 입덕하고 말 거다' 추천하고 싶은 편이 있나요?

선우 평소에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연어 스테이크 만드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요리하는 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 전 메릴린 먼로로 분장한 적이 있는데요. 되게 잘 나왔어요. 꼭 보세요. **성준** 전 망가지는 것밖에 없어서...(웃음) 어떤 편을 봐도 다 저에게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준** 아직 공개가 안 된, 제가 PD였던 방송이 있는데, 멤버들의 진짜 성격이 다 나와요. 본인도 모르는 성격이요.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서울을 탐방하면서 역사 문제를 내는데 멤버들의 백치미가 폭발했죠. 찍으면서도 진짜 재밌었어요.

성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장 짓궂은 사람은 누구예요? 성준씨가 민수씨를 그렇게 괴롭힌다던데...

민수 너무 괴롭혀요. **성준** 솔직히 다 모함이에요. 맨날 형한테 버릇없이 구니까 맞는 거죠.(웃음) **원준** 방송에선 다 편집되고 요만큼만 나와. 하하.

민수씨, 형한테 무슨 잘못을 하는 거예요.

민수 저는 그냥 쳐다봤거든요? 그럼 "뭘 쳐다봐!" 이래요. **성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눈을 확 치켜뜨다) **민수** 해해. **성준** 이렇게 약 올린 다음에 제가 때리면 그걸 짚는 거예요. 팬들은 몰라요, 이걸...(실제로 촬영 때 두 사람은 몇 번이나 통과 제리처럼 추격전을 벌였다).

숙소 생활은 어때요? 또래 형, 동생들이 모였으니 같이 밥도 해먹고 재미있게 살 것 같아요.

원준 숙소에서 뭘 먹을 시간이 없어요. 잠만 자고 씻기만 해요. 밥술도 버리고 쌀, 식기류 아무것도 없어요. **성준** 숙소 옆에 페리카나 있거든요. 매출을 엄청 올려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4번 시켜 먹냐? 카드로 계산해도 쿠폰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 찍었으면 50장 될걸요? **원준** 50장이 뭐야, 한 100장 될걸?

사장님한테 어필 좀 해주세요.(웃음)

성준 페리카나 옥수점 사장님(일동 웃음) 저희 늘 시켜 먹는 친구들입니다. 항상 사장님의 서비스 감사히 잘 받고 있지만, 쿠폰을 좀 찍어주셨으면... 사람이 또 '모으는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능청능청)

수웅



치킨을 그렇게 매일 시켜 먹다니! 아이돌이라면 모든 행동에 엄격한 관리가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예요.

성준 숙소 밖에도 잘 돌아다녀요. 산책도 하고, **수웅** 전 잔고 관리하러 은행에 자주 다녀요.(웃음) **선우** 활동이 얼마 전에 끝나서 요즘엔 계속 밖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활동 안 할 때는 연습해야 하거든요. 대표님이 공식 스케줄도 일절 못 잡게 하세요.

안 그래도 묻고 싶었어요. <hello> 컴백 전에 3개월 동안 지옥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옥훈련이었어요?

민수 아침 일찍 헬스장 가서 몸 만들고 춤, 노래, 랩 돌아가면서 계속 연습했어요. 매일 서너 시간씩 자면서. **성준** 대표님이 열심히보단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사실 열심히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웃음)

그런데 연예계라는 곳이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 잘하는 것과 잘되는 것이 늘 같이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선우 사실 <hello>에 대해서 저희의 만족도도 그렇고, 노래 좋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잘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인지도가 없는 아이돌이니까 많이 안 듣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번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멤버들이랑 곡이 아깝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준 오리지널 버전과 어쿠스틱 버전을 앨범에 같이 수록했거든요. 원래 3주는 오리지널로 방송하고, 1주는 어쿠스틱으로 해보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묻혀버리더라고요. 솔직히 되게 아쉽죠.



선우

요즘 차트 상위권을 보면 새로운 가수들 보기가 힘들잖아요. 5~6년은 거뜰히 된 중견 그룹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이돌은 점점 많아지는데 시장에 안착하긴 더 힘들어졌어요.

원준 네, 맞아요. 그냥 저희의 목표는 그때 당시에만 멋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봤을 때도 좋은 음악을 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벗어날 순 없지만 트렌드에 정체돼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도 쉬지 않고, 앨범 마무리할 때마다 저희끼리 회의도 하는 거고요. 뭐가 부족했는지, 앞으로 뭘 해보고 싶은지.

얼마 전 데뷔 2주년을 맞이했어요. 한국의 20대는 미래를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고민은 없어요?

선우 사실 성준이랑 저는 군대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커요. 군대를 가더라도 뭐 하나 성공시켜놓고 가면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을 텐데.

성준 지금은 미래를 생각해서 노래 퀄리티나 네임 밸류를 높이는 게 맞았다고 싶어요. “걱정 말자, 잘되겠지” 말하긴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웃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래 친구들보다 네 발자국 정도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원준



민수

다음 활동 계획은 어떻게 돼요? 힌트 좀 줄 수 있어요?

선우 어제 녹음을 했어요. 여러 개를 해보고 있어서 확실히 어떤 콘셉트로 정해질진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유럽 투어를 간다면서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성준 파리에 도착해서 하루 쉬어요. 시차 적응해야 하니까. **원준** 그 뒤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를 돌아요. 약 14일 정도 나가 있고요.

2주만에 그 나라들을 다 돌아요? 굉장히 뽀뽀하네요.

선우 네, 한 달 정도 잡고 여유 있게 가면 좋을 텐데... 평소에도 스케줄이 타이트해서 도망 계획 짠 적도 있어요. 하하. **원준** 매니저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차 키 들고 나가자고 작당했는데 막상 집에 오면 다들 피곤해서...(웃음) **선우** 계획을 짜면서 저희는 직원 분들한테 다 얘기해요.(웃음) 그냥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힘듭니다' 표현하고 싶은 거죠. 계획만 짜고 안 해요.



성준

이 질문이 희망고문처럼 느껴지네요. 원래 투어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멤버들과 유럽의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선우 유럽 가면 다 흠어질 것 같은데요? **원준** 드래곤볼처럼 파워! 근데 영국에 있는 축구장은 꼭 가보고 싶어요. 아스날이란 팀을 좋아하는데, 축구장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선우** 전 에펠탑. **성준** 전 그냥 프랑스를 사고 싶어요. 통째로.

Think:

Editor in chief 전아론 aron@univ.me Illustrator 전하은



50

길 잃은 흥터들을 생각한다

왼쪽 무릎에 흥터가 있다. 꽤 크고, 못생긴 흥터다. 워낙 부주의한 탓에 여기저기 잘 부딪히고 다니는 편이라 명도 상처도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이 정도로 깊은 흥터는 이것 하나뿐. 한 번 다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재차 상처가 생겨 그런가 보다.

아주 어렸을 적,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전에 겪은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다. 첫 사고(?)는 체육 시간이었다. 초등학교 내내 계주였던 나는 달리기를 좋아했고, 잘하는 편이기도 했다. 다른 운동에는 거의 쟁쟁이지만 달리는 것만은 여전히 좋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추

리닝을 꿰어 입고 한강변을 달릴 때가 지금도 종종 있다. 그날은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허들을 뛰어넘는 과제까지 주어진 '장애물 달리기' 시간이었다. 원래 잘하는 건 더 잘하고 싶은 법. 맨 땅에서 기동차게 뛰는 내가 허들엔 그렇게 취약할 줄이야. 대차게 넘어진 무릎에서 운동장의 흙과 벗겨진 살갗에서 흐르는 검붉은 피가 영겨서 흘렀다. 그때 나는 "뒤에서 누군가 밀었다"며 울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달리고 있는 사람 등을 대체 누가 무슨 재주로 밀었겠나만은...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는

지, 그 후로 오랫동안 나는 그 사실을 철썩같이 믿었다.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난 건 주말 오후. 집 근처 운동장에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 두 발 자전거에 능숙하지 못한 터라 동생과 아빠를 동행한 채였다. 길가에 붉은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던 기억으로 보아, 5월이나 6월 즈음이었던 것 같다. 기분은 좋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는 압박감에 다소 긴장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소극적이고 소심한 아이였으니까.

각과로는 달리 두 발 자전거는 세 발 자전거보다 재미있었다. 양 옆을 지탱해주기 위해 있었던 보조 바퀴가 없어지자 의외의 해방감이 찾아왔다. 제한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만큼 자유롭기도 하다는 걸 그 시절 내가 깨달았을까. 만약 그랬대도 아슬아슬한 자유를 누린지 얼마 못 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탓에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운이 나빠 넘어진 방향에는 커다란 돌부리가 튀어나와 있었고 아직 다 낫지 않은 무릎의 연한 살에 돌이 거의 박히다시피 했다. 살점이 들렸고 피가 많이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는 나를 업거나 안아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빠 뒤를 따라 질퍽거리며 걸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아빠의 등, 바닥에는 장미처럼 붉은 피가 드문드문 떨어졌다. 슬프고 아팠다.

훗날 부모님과 술을 기울이던 자리에서 그 얘길 꺼내며 “그때 왜 그러셨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억이 없다.” 모르는 척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기억이 없으신 눈빛이었다. 내 왼쪽 무릎에는 아직도 흉터가 선명히 남아 있는데.

그 순간의 절망적인 기분은 무릎의 흉터만큼이나 내 머릿속에 여전히 또렷하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다치기 전과 후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 어쩌면 아빠는 그 이후에 나를 업어주거나 안아주셨을 수도 있다. 엄마가 달려 나와 나를 달래줬을 수도 있다. 그 때로 돌아가 볼 순 없으니 확인할 길은 없지만, 흉터와 흉터에 대한 슬픈 기억은 오로지 나만의 것으로 남아버렸다.

이것이 비단 몸의 흉터에만 국한될까. 눈으로 확인되는 것도 이 정도인데, 마음에 남은 것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복잡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니 아찔했다. 내가 가담한 연루된, 그러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흔들이 불명 있으리라. 몇 안 되기를 바라지만 아마 많은 것이다. 나는 감히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의 상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알까. 그로 인한 흉이 남아 있다는 걸 짐작 못 할 것도 알까. 심지어 그게 어떤 모양일지 상상도 해본 적 없다는 건?

내 경우를 생각해봤다. 가장 가까운 상처는 무엇인가, 가장 크고 깊은 흉터는? 몸의 흉터도 구석구석을 뒤져보고 나서야 이 흉터와 저 흉터의 크기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마음의 것은 어찌 따진단 말인가. 일단 떠오른 것들부터 더 들어봤다. 내게 나쁜 말을 던진 사람, 고이 보낸 마음을 저버린 사람, 서로에게 불신의 칼을 들이민 사람, 나를 아끼는 마음을 너무 거칠게 표현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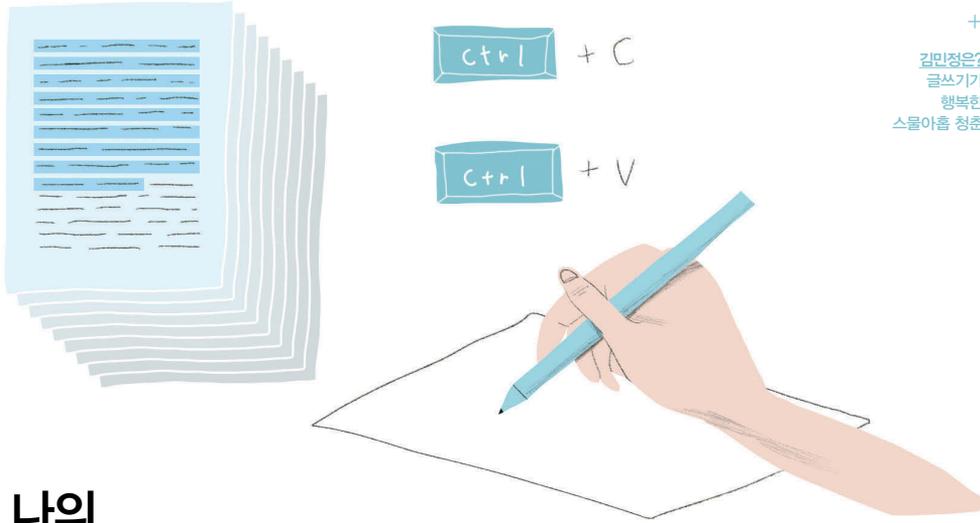
동시에 내가 기억하지 못할 상흔들에 대해서도 떠올려봤다. 누군가에게 나는 악당, 철천지원수일 수도 있다(모르겠다).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일 수도, 우유부단하고 갑갑한 사람일 수도 있다(들은 치명적 교집합이 있다). 서운하고 아쉽고, 그래서 더 미운 사람이거나(실은 별 볼 일 없다), 혹은 별 거 없어서 쏘는 시간이 아까웠던 사람일 수도(진즉 뚝뚝하시지), 아무리 밀접하게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다 해도, 서로 가지고 있는 기억의 조각이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없다. 특히 나쁜 기억에 관해서는 더 그렇다. 내 마음이 다쳤던 순간을 똑같이 아프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 상처는 오직 나에게만 생긴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를 슬프게 만들었리라 예상되는 순간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그의 마음속에 남았을지는 모른다. 나로서는 짐작도 못 하는 어떤 것에 깊이 다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나 또한 타인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으니 안다. 그럴 땐 상대가 무심결이었든 아니었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몸에 아문 상처를 몇 개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흉터 몇 개는 있다. 크고

**흉터는 흉터다.
상처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 다 아문 상처는
이제 내 피부다.**

못난 흉터는 가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남도 그러려니 한다. 대학교 때 매일 수업을 같이 듣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허벅지 위쪽에 화상 흉터가 있었다. 쉽게 보이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짧은 치마를 입으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얘기를 들어 보니 아주 어릴 때 화상을 심하게 입어 생긴 자욱이었다. 사연을 들은 누군가가 말했다. 그럼 왜 자꾸 짧은 치마를 입어? 안 그러면 흉터 안 보일 텐데. 그러자 그 친구가 답했다. “왜 그래야 돼? 나는 짧은 치마가 좋아. 어차피 사람들이 내 다리만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가 워낙 밝고 호탕한 성격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크고 깊은 흉터는 간혹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흉터는 흉터다. 상처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 다 아문 상처는 이제 내 피부다. 내 일부가 된 것이다. 흉터 때문에 짧은 치마를 입지 못하는 것, 두 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와 비슷한 이유로, 연애를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 나쁜 기억을 만 들어준 사람과 성격이나 스타일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미리 피해 다니는 것, 실패했던 일에 재도전을 꺼리는 것 또한 어리석다. 어쩌면 흉터가 많다는 건 더 새로운 사람, 더 다양한 공간, 더 신선한 상황... 그런 것들에 아무튼 겁 없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일 테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 멋진 거니까. 적어도 나는 꾸준히 흉터투성이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만, 단순히 부주의할 뿐인 나는 거기서 좀 예외가 되려나.





+ 김민정은? 글쓰기가 행복한 스물아홉 청년

나의

베껴 쓰기의 역사

뜨끔. 가슴속 무언가가 찢어졌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괜히 주변 눈치를 보고 있다. 소설가 신경숙의 단편소설 「전설」이 일본 문학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우국」의 한 구절을 표절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고 며칠이 지난 지금은 작가의 입장 발표와 출판사의 사과문 소동, 네티즌들의 증거 확보를 거쳐 의혹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며 내가 느끼는 이 따끔함은 뭘까? 왜 이러지? 질끈 눈을 감아본다. 그 느낌을 외면하고 싶어서. 그런데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엔 다시 슬며시 눈을 떠본다. 희미한 기억들이 점점 선명하게 하나씩 눈앞에 펼쳐진다. 용기를 내 마주 보기 시작한다. 이 따가운 느낌의 정체를. 그리고 고백해보려 한다. 부끄러운 내 베껴 쓰기의 역사를.

장면1. 내 나이 열 살, 우리나라의 푸른 자연에 대해 아름다운 동시를 지어 오라는 숙제를 끌어안고 나는 주말 내내 공방대고 있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하고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절망감에 휩싸인 내 눈에 책 한 권이 들어왔다. <전국 동시대 회 수상작 모음집>. 그래, 이거다. 마음에 드는 시를 하나 고르고, 제목과 단어만 바꾼다. 원작과 완전히 똑같은지 않게. 살짝만. 금방 완성된 시를 노트에 쓰고 가방에 넣었다. 아, 이제 숙제 끝이다. 뜨끔. 남의 것을 베껴도 될까? 에이, 뭐 어때, 완전 똑같은 건 아니잖아. 숙제는 일단 내고 보자. 제출한 시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교실 게시판에 걸렸다. 나는 그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장면2. 수능 시험을 마친 후 이것만 참으면 끝이라고 매일 나를 다독이며 눈물을 준비하던 열아홉살의 겨울. 눈송이에서 제일 먼저 한 건 합격자들의 글을 읽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비슷하지 않게 느껴지도록 재구성하는 연습을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문장을 따로 골라 적어두는 것. 학원 선생님은 늘 강조했다. "시험에서 비슷한 주제가 나오면 이 문장들을 기억했다가 인용하세요." 뜨끔. 인용이라. 결국 표절 아닌가? 이게 눈송이의 취지에 맞는 걸까? 에이, 웬 오버야. 일단 합격부터 해야지, 남들도 다 이렇게 할 텐데 뭐. 따가운 그 느낌은 일단 대학에 붙고 보자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장면3. 대학 생활의 반은 과제 제출이었다. 마감 기한에 조바심 내며 글을 쓰는 것은 정말 고통이었다. 심할 때는 단 한 줄도 생각할 수 없었다. 2학년 때, 문학에 관한 교양수

업을 듣게 되었고, 소설 한 권을 읽고 비평을 쓰는 과제가 주어졌다. 새벽까지 과제를 붙잡고 있던 나는 내가 쓰고 있던 글의 나머지 한 단락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쓴 리뷰를 검색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나머지를 채웠다. 결과는 A+. 뜨끔. 나는 이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나?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성적을 다시 받을까? 에이, 뭐 어때. 학점은 잘 받는 게 좋잖아. 점수를 포기하고 양심을 지키려고 내가 얻을 게 있었어? 그렇게 부끄러운 A+는 나에게 남았다. 몇 번의 베껴 쓰기가 나에게 진정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직접 부딪치면서부터였다. 내 결과물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맘 흘러 이뤄낸 것을 남이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을 때, 남의 것을 탐내고 노력 없이 취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뜨끔'한 느낌을 '뭉, 어때'라는 생각으로 애써 가리며 지나왔던 과거를 이제야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다.

많은 20대들이 창작의 고통 앞에서 유혹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리포트나 자소서를 쓸 때 Ctrl+c, Ctrl+v를 무수히 반복하며, 남의 것을 짜깁기하고 베껴 쓸지 모른다. 생각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은 양심 따위 잠시 모른 척하더라도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그렇게 쓴 것이 진짜 나의 것일까? 그럴 바엔 차라리 실패하자. 실패의 기억은 오래가지 않는다. 성공을 위한 싸이트이라 위안 삼을 수도 있지만 부끄러운 기억은 오래 남는다. 이 정도는 괜찮아, 누가 알겠어라며 유혹의 손을 잡는 순간, 그때 생긴 마음의 송곳이 언젠가 자신을 따끔하게 찌를 것이다. 성시경이 고백은 변비 같은 거였다. 고민 끝에 오래 묵혔던 진심을 꺼내는 고백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다. 글도 마찬가지다. 나의 생각을 수없이 곱씹고 발전시켜, 나올 듯 안 나올 듯, 고통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나온 글. 그런 글만이 읽는 사람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덧붙이는 말: 혹시 이 글도...? 확실히 밝힌다. 이 글은 단 한 번의 베껴 쓰기도 없었음을. 이 안엔 에어컨이 안 되는 고시원 방에서 글을 쓰며 흘린 땀과 행복하게 몰입한 시간이 들어 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린다. 안심하고 믿으셔도 된다.

중국어 교육 1위

대한민국 대표 강사

문정아



Weekly Out Campus

뿌리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롯데디자인
스토리 공모전

CASS 펜타포트 원정대
Blue Rockies

SKT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모전

KB 락스타
마케팅 챌린지

Gift

여러분께
독자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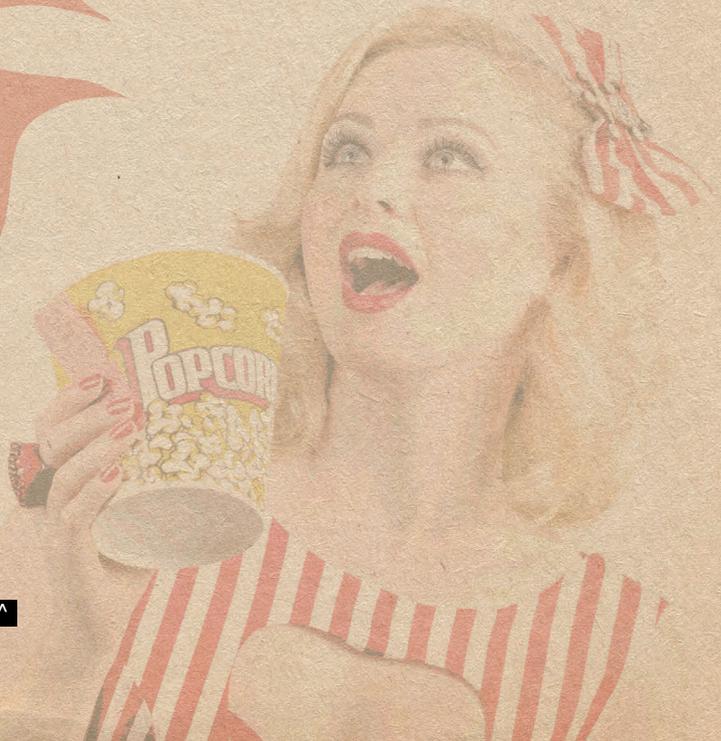
대학내일 지면에 대한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대학내일의 다양하고
유익한 기사들을 읽어보신 후
readers@univ.me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지면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매주 1명을
뽑아 '글로시박스'를 드립니다.

글로시박스 전문 뷰티 MD들이 매달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세련고 트렌디한 화장품 5개를 펙코박스에
담아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16여
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글로시박스!
매월 구독료 1만 6,500원으로 4~5만 원의
다양한 뷰티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이번 달은
로맨틱 코미디의 사랑스러운 여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로코퀸 박스'를 드립니다.
www.glossybox.co.kr

GLOSSYBOX



독자선물 당첨자 발표 최선아(1588) NO.743 아웃캠퍼스 지면 독자 의견 선정을 축하합니다.^^



Hot 이ssue

대학생만의 특권!

Editor 김주리 juri@univ.me



로테 제2회 디자인 스토리 공모전
7.28 ~ 7.31

주제: 패키지 그래픽 디자인 및 기능성 디자인 리뉴얼
 제품: 4개 제품 및 특별부문 제품 중 1개 선정 / 총 제작수량 7개
 소재: 4개 제품 및 특별부문 제품 중 1개 선정 / 총 제작수량 7개
 형태: 4개 제품 및 특별부문 제품 중 1개 선정 / 총 제작수량 7개
 기타: 4개 제품 및 특별부문 제품 중 1개 선정 / 총 제작수량 7개

제1차 "그래픽" 온라인 접수 및 발표
 접수: 2015년 7월 28일 (화) ~ 7월 31일 (금) 17:00 마감
 발표: 2015년 8월 7일 (금) / 홈페이지 공지 (2차 접수 장소 안내)
 ▶ 1차 합격자의 합계 2차 접수 진행
 ▶ 특별부문의 경우, 1차 온라인 접수만
 참가방법: 홈페이지(www.lottedesignstory.com) 접속 후 지원 파일 및 작품설명서 접수
 - 홈페이지 내 공모 제품 소개 및 디자인 가이드 참조
 ▶ 지원 파일: A3사이즈(2430x3300px) / 300dpi 이상 / 20MB 이하(합계 2차 파일도 포함)
 ▶ 작품 설명: 접수 신청서 내 기재

제2차 "MOCK-UP / 활용 이미지" 온라인 접수 및 발표
 접수: 2015년 8월 24일 (화) ~ 8월 28일 (금) 17:00 마감
 발표: 2015년 9월 7일 (월) / 개별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 (특별부문 수상자 발표 포함)
 참가방법: "MOCK-UP" 및 실제 활용 이미지 접수
 ▶ "MOCK-UP": 1차 그래픽 합계를 실제 형태로 제작 후 오프라인 접수
 ▶ 실제 활용 이미지: MOCK-UP 작품을 실제 활용 후, 홈페이지 MY PAGE 내, JPEG 파일(300dpi 이상 / 사방 면 4정방미터)

시상
2015년 9월 15일 (화) / 시상식 장소는 수상자에게 한해 개별 안내

시상내역

대상 (1명)	상금 700만원 및 상장	총합 (1명)	상금 100만원 및 상장	합산 (200명)	상장
최우수 (1명)	상금 500만원 및 상장	기총합 (4명)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특별부문의 경우, 1차 온라인 접수만	
우수 (1명)	상금 300만원 및 상장	합계합 (11명)	상금 100만원 및 상장		

문의처
 LOTTE DESIGN STORY 운영사무국
 LOTTE DESIGN STORY 홈페이지 (www.lottedesignstory.com)
 ☎ 02-5509-7300 | 팩스 02-5509-7301 | lottedesign@lottedesign.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ottedesignstory.com) 참고

주최 롯데알미늄 롯데중앙연구소 **후원** 롯데제과 롯데합성유료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알미늄, 롯데중앙연구소 제2회 롯데디자인스토리 공모전

www.lottedesignstory.com

패키지 디자인 프로젝트 '제2회 롯데디자인스토리 공모전'을 연다고 해, 4개 제품 및 특별 부문 제품 중 1개를 선택하여 패키지 그래픽 디자인 및 기능성 디자인을 리뉴얼하면 돼. 1차 '그래픽' 온라인 접수 및 발표 후,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MOCK-UP/활용 이미지' 오프라인 접수 및 발표를 진행한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디자이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접수기간 7월 28일~7월 31일 17:00 마감
지원자격 국내외 2~3년제 및 4년제 대학생, 대학원생
공모주제 패키지 그래픽 디자인 및 기능성 디자인 리뉴얼
시상내역 대상 700만원 및 상장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15 뿌리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www.kpic.re.kr



2015 CREATIVE IDEA FOR PPURI INDUSTRY

2015 뿌리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2015년 9월, 첨단기술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혁신!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9월 1일 ~ 8월 10일

공모주제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뿌리산업의 이미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시상내역 대상(산업부장관상) 300만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2015 뿌리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뿌리산업의 이미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이야. 광고, 제안서, 캐릭터, 웹툰, UCC, 슬로건 중에 하나를 골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출하면 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꼭 지원해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공모기간 7월 1일~8월 10일
공모주제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뿌리산업의 이미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시상내역 대상(산업부장관상) 300만원

SK telecom SKT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topenlab.sktelecom.com



안전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생각!
SKT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2015년 7월 6일 ~ 8월 21일

공모주제 미래지향적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Big data 아이디어

시상내역 대상 1,000만원(우수 공모작은 향후 사업화 지원 예정)

SKT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어. 미래지향적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 Big data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공모기간 7월 6일~8월 21일
공모주제 미래지향적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Big data 아이디어
시상내역 대상 1,000만원(우수 공모작은 향후 사업화 지원 예정)

HR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마감	기타
KDB 산업은행	은행업무 지원 인턴	recruit.kdb.co.kr	~7.15	신입행원 채용 시 일정비율을 청년인턴 중 채용 예정
하나투어	영업기획, 상품개발기획, 전략/기획/관리	www.hanatour.com	~7.16	대졸 공채 시 혜택 부여(서류전형 면제 등)
한전KPS(주)	일반분야, 해외사업분야	www.kps.co.kr	~7.20	2015년 한전KPS 신입사원 채용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마감	상금
대한적십자사	2015 한철 공모전	인쇄광고/영상광고	~7.17	각 부문 대상 100만원
한국경제신문	2015 장영실 발명, 창업 대전	아이디어	~7.17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100만원
신한카드	2015 신한카드 GREAT 광고 캠프	광고	~7.20	GREAT상 200만원
KB국민은행	KB 락스타 마케팅 아이디어 챌린지	마케팅 아이디어	~7.24	총 장학금 2,600만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디자인	~7.26	최우수상 명의의 서비스 시행, 최우수상 150만원
미래창조과학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 X-프로젝트	아이디어	~7.3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500만원
국회의원연구단체 <청년플랜 2.0>	제3회 청춘파란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8.2	국회의장상 대상 3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2015 스마트 TV 앱 및 주변기기 공모전	IT	~8.7	대상 1,0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스마트 TV
애경산업	2015 케라시스 마케팅 공모전	마케팅	~8.31	대상 500만원, 홍콩 왕복 항공권, 인턴십
눈높이	제2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문학	~9.30	총 상금 2,300만원, 수상작 중 출간 기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8회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논문	~9.30	최우수상 상금 500만원, 신입사원 및 청년인턴 지원 시 우대
고용노동부	청년이 꿈꾸는 일과 삶의 균형 UCC 공모전	UCC	~9.30	대상 500만원, 수상 작품 중 일부 CGV 극장 상영

대외활동

주최	활동명	활동기간	지원마감	혜택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Young Talent 2기	5개월	~7.19	동아리 재료비와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 동아리 포상
삼성그룹	파란만장 삼성그룹 대학생 끼봉사단	4개월	~7.22	활동비, 우수 공역 동아리 장학금
카스	CASS 펜타포트 원정대 5기 Blue Rockies	3일	~7.24	2박3일간 인천 펜타포트에서 동거동락
일동후디스	SNS 앤업카페 포토 컨테스트	-	~7.31	상금 100만원, 광고 모델 기회

강연/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CJ E&M, 안산시, 9ENT	2015 안산밸리록페스티벌	valleyrockfestival.mnet.com	7.24~7.26	노엘 젤러거, 솔탄 오브 더 디스코, 국카스텐 등 출연
부산광역시	2015 부산록페스티벌	www.rockfestival.co.kr/KOR/Rock	8.7~8.9	YB, 노브레인, 장미여관, 갤럭시익스프레스 등 출연
인천광역시, KBSN	2015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pentaportrock.com	8.7~8.9	스콜피온스, 프로디지, 서태지, 쿡스 등 출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015 사운드베리 페스타	www.facebook.com/soundberryfesta	8.15~8.16	윤하, 클래지콰이, 스탠딩에그, 노리플라이, 옥상달빛 등 출연




영화 **배틀라임** 과 함께하는

알바몬 여름알바 Festival

알바비 50만원, 영화예매권의 행운을 잡아라!



Out Campu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5 청년재능기부사업

북적북적, 덩기덕 쿵덕 인적 드물던 **전통시장**에 무슨 일이?

전통시장이 젊어졌다. 볼거리도 많아졌다.
시장 구석구석을 문화로 물들이는 청년 봉사단 덕분이다.
진심이 모이면 시스템이 형성되고, 시스템이 발달하면
문화가 되는 법! 재능 많은 청년들의 날갯짓이
우리 전통시장을 바지런히 변화시키는 참이다.

Editor 윤진아 wachen@hanmail.net



Welcome to 오감만족 전통시장

2015 전통시장 활력회복사업의 막이 올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청년 동아리와 전통시장을 연계해 다양한 청년 재능기부 사업을 추진한다. 2015 Young Talent 2기의 활동은 밴드, 댄스, 노래, 무용 등 대학 내 공연 동아리를 활용한 '공연' 부문과 시장의 빈 공간을 채우는 '벽화 그리기', 시장 상인의 캐리커처를 이용한 간판/명찰과 시장의 정체성을 형상화하는 상징물을 제작하는 '디자인' 부문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ICT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도 있다. 청년 동아리 주도하에 전통시장 판매촉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장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콘텐츠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여름 인천공항공대 학생 해외봉사단 '너나들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갈고 닦은 미술 실력을 벽화 그리기 현장에서 한껏 뽐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청년의 재능을 더해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변모시킨다'는 미션에 너나 할 것 없이 환호했다는 너나들이 단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더 멋진 미래로 정진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에너지원이 됐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경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관악신사시장의 밝고 정겨운 모습을 상인들의 앞치마에 옮겨 닮았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찾아가던 시장에서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을 몸소 체험했다는 학생들은 "전통시장에 온 손님들이 앞치마를 보고 한 번씩 웃기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했다"며 "대학생이라면 꼭 한 번 해봐야 할 경험"이라고 입을 모았다.

울해도 할 일은 많다. 수원시 장안문 거북시장에 캐릭터 조형물도 제작하고, 강원도 정선군 고한 시장에는 광부들의 이야기를 벽화로 만들 계획이다. 종로광장전통시장의 대표품목인 한복 패션쇼도 개봉박두. 경남 창원시 상남시장에는 비보잉, 탈춤, 버스킹 등으로 무장한 '청춘 아시장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다시 또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년 문화계열라'들이 한 땀 한 땀 촘촘히 채워갈 프로젝트의 밀도만큼, 우리 전통시장의 이야기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풍성해질 듯하다. 내 좁은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삶을 확장하는 즐거움을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서 느껴보길,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멋진 릴레이의 든든한 주자로 달려 주길 기대한다.

Young Talent 2기 모집안내

- 신청자격: 고등학생 및 대학생 동아리, 일반 청년 동아리(최소 3인 이상)
- 신청기간: 2015. 7. 6(월) ~ 2015. 7. 19(일)
- 신청방법: 공식 카페에서 양식 다운받아 E-mail 제출(<http://cafe.naver.com/youngtalentgive>)
- 활동기간: 2015년 7월 ~ 11월
- 교육일정: 7/29(수도권), 7/30(지방)
- 활동포상: 동아리 활동비, 재료비 지원, 우수 활동 동아리 상장 및 포상
- 문의처: Young Talent 2기 운영사무국 02-6959-1764, talentgiving@naver.com



안녕 여름!

블루큐브와 함께한 72시간 제주 여행

대학생들의 여름 여행을 지원했던 던킨도너츠의 '청춘여행 with 블루큐브' 이벤트 선발팀이 제주 여행기를 보내왔다. 당신의 여름도 이렇게 푸르기를 바라며! 블루큐브만큼 시원·상큼했던 그들의 서핑 도전담과 제주 여행기다. Editor 황혜원 hwaang@univ.me

오설록 6월 30일

도착한 첫 날은 비가 내려 서핑을 포기하고 오설록으로 갔습니다. 찻잎들이 빗물을 머금어 더욱 촉촉하고 푸르게 빛나 녹차 밭 한가운데 서니 몸 속에 있던 도시의 탁한 기운은 말끔히 사라지고 자연의 맑은 기운으로 충만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짙 예쁘게 나와야지~



블루큐브와 함께!

스머프 보틀에 블루큐브를 담아가서 서핑 후 마셨더니 꿀맛이었어요! 파란 색상에 먼저 눈이 시원해지고, 새콤달콤한 레몬에이드가 갈증을 해소해줘서 한번에 더위가 싹 가셨어요!

던킨도너츠 블루큐브는 레몬맛을 함유한 파란색 얼음으로 만든 음료 메뉴로 빙하 크러쉬, 하와이안 크러쉬, 레몬에이드, 모히또 에이드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 색소인 스피룰리나에 레몬 과즙이 함유된 새콤달콤한 얼음으로 큐브가 녹더라도 마지막까지 진한 레몬 맛을 느낄 수 있다.



상큼한 블루큐브!

7월 1일

표선해수욕장

둘째 날은 청춘 여행의 목표였던 '서핑'에 올랐습니다. 제주의 서핑 스팟이 표선과 중문 해수욕장 두 곳인데 초보자들은 파도가 잔잔한 표선에서 시작한다고 하여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핑 강습료가 비싸 미리 서핑 타는 법 동영상 보고 강습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저학끼리 탔는데 무척 재밌었습니다. 한 명이 뒤에서 서핑 보드를 밀어주면서 탔더니 다행히도 초보자들은 하기 어렵다는 일어서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서핑 폼 제대로!



7월 2일

C.ROUD_이경민, 전중섭, 전중혁, 추연욱

우도봉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곳이 있다면 바로 우도봉입니다. 오전에 서핑을 하고 오후에 우도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 단 하나뿐인 산호 백사장인 '우도 서빈백사'나 '등대공원'도 무척 좋았지만 우도의 꼭대기인 '우도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도봉에서 바라보는 섬의 전경과 바다, 그리고 저 멀리 제주도과 한라산의 풍경까지 '이런 걸 한 폭의 수채화라고 하는 구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경치가 무척 멋있었습니다.



interview



단국대 C.ROUD_전중섭, 이경민, 전중혁(건축 11), 추연욱(도시계획부동산 11)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블루큐브 with 청춘여행'에 선정된 C.ROUD팀은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동기로 만나 영상을 찍고 있다. 4명의 남자, 1명의 여자로 구성된 팀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남겨 페이스북과 비메오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촬영의 목표가 세상을 보는 스스로의 시선 변화를 관찰해보자는 것으로 개인의 내면 성장에 관심을 갖는 기특한 친구들이기도 하다. 나이가 60이 되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떠난다면 그것이 청춘여행이 아니냐고 하는 그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고생을 사서라도 해보겠다는 C.ROUD의 여행 동영상은 페이스북 페이지 C.ROU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일신문은 국내언론사 최초로 온라인기사를 전면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1993년 주간내일신문창간, 2000년 일간지 전환에 이은 세 번째 도전입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기사제공도 중단합니다. 내일신문 사이트(www.naeil.com)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속보경쟁보다는 심층기사, 예측력이 돋보이는 전망기사, 깊이 있는 여론분석 기사, 차원높은 시론과 칼럼, 지면으로는 담기에 모자랐던 국내외 자료들로 온라인 유료화에 응해주시는 독자들과 보답하겠습니다. 내일신문 구독자들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Weekly Hot News



이주의 만평



인터뷰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 높여 지속성 확보 ”

people

박경수 변호사

“ 군에도 헌법정신이 강물처럼 흘러야 ”



ebook



www.naeil.com

내일신문 검색

뉴스 | 오피니언 | 내일스페셜 | 자료실

뉴스룸 | 정치 | 지방자치 | 경제 | 세계 | 사회 | 문화 | 피플 | 기자별 기사 보기 지역내일신문보기

내일신문 · 서강대 · 현대정치연구소 · 한국리서치 특별기획 - 메르스와 박근혜정부①

핵심지지층, '메르스 쇼크'에 휘청

여권 '신보수' 몸값 푼다
수도권 중도표심에 호소력 ... 유승민 원희룡 권영진 주목

한국사회, 극단적 판단자 늘었다
'매우' '절대' '전혀' 응답자 급증 ... 정부 평가하기 여론전력이 '한뿔'

값싼 청와대 연구용역 ... 친정부인사 관리용?
천만원 미만 수익계약 ... 지난해 29건중 25개 내용 저자 공개 안 해

자영업 · 판매서비스직 직격탄 맞았다
자영업자 49.6% '피해' ... 서비스직 지지율 12.2% ↓

이지도 못잡는 재벌 상장사 25곳
더민 구조조정으로 '졸비' 대기업 증가 ... 국내 은행 자산건전성 심각하게 위협

인천시, 도시철도2호선 차량 살때 수천억원 더뒀다
추정가격 높이고 납품차량 줄여 1100억원 ... 감사원 "현대로템에 특혜"

삼성-엘리엇, 소액주주 마음얻기 '사활'
'국내 대 해외' 박빙구도 ... 지분 24%로 캐스팅보트

"그리스사태, 부채탕감 말고는 해법 없다"
독일 슈피겔지 "년 전 됐어야 할 일" ... "고집 센 유럽지도자들 질타"

주요기업 26개사 근속연수 대비 임금 비교

여직원 연간 평균급여, 남자 직원의 61%

"공존이나 공멸이나" 호수핑은 전쟁중
데이터호수핑 활성화로 TV호수핑과 본격경쟁

원전 정책 고민하는 유럽 ③ - 40년 전부터 방폐물 처리 준비한 '스위스'
원전건설 직후부터 방폐물처분장 준비

내일시론

헤지펀드 공세 막을 방패가 없다	김진동 / 논설교수
이회호 여사 방북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형삼 / 논설교수
계파다툼 한국정치 바뀌어야 한다	정세호 / 수필
석유공사 2조원대 손실 누가 책임지나	장병호 / 기획특종팀장
"실정권 검찰의 기개를 찾습니다"	문형재 / 논설교수

opinion

그리스의 선택, 불투명한 미래	임민진 / 서울대 명예교수
대담한 기업가정신, 대담한 미래	김문경 / 중소기업 연구위원
폭 막힌 동북아시아	추경진 / 서울대학교 교수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실크로드	이선진 / 서강대 동양연구소 교수
대통령 · 국회의장 회동 필요하다	이경형 / 언론인
그리스사태, 남의 일만은 아니다	김영민 / 성균관대 행정학수
급박한 그리스의 향방	김국주 / 금융학
20대는 왜 마스크를 많이 썼나	심재홍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비국과 메르스 불황	박영규 / 언론인
부유층 출국세 도입한 일본	최종술 / 경제평론가
'긴축살인'에 맞선 그리스의 존엄	차미애 / 언론인 · 번역가
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선거	육동일 / 중앙대 교수
에너지 정책을 혁명하라	김수홍 / 언론인 · 전 한국일보 수필
주식시장 과열을 걱정하는 이유	송기근 / 경제평론가
IS 탄생 1년, 더 복잡해진 무슬림 세계	김병홍 / 언론평론가
모방의 윤리	시용석 / 고려대 명예교수
강한 야당, 강한 여당이 보고싶다	성한표 / 언론인
한미 금리 역전의 의미	김영민 / 서강대 경제학박사
변칙이 변칙을 낳는다	장석진 /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헬조선'의 혐오발언 규제	김주연 / 언론인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 각서의 효력
술사이고 작업장에서 이동 중 사고 "회사 책임없다"는 각서 쓰면 효력은



아직도? 이젠 연어지

100%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
맛있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담백한 맛 | 첨가물 0% | 세계 10대 슈퍼푸드 연어



알래스카 연어는 100% 자연산 연어, 대두유, 정제수, 정제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 좋은 업그레이드
ALASKA SALMON
알래스카 연어



다들 꿈한 융합

지스트는 폭넓은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류·국가·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스트와 함께 꿈을 이룰 우수인재를 모집합니다.

2016 학년도 봄학기 1차전형 지스트 대학원 신입생 모집

주요일정

- 원서접수: 2015. 7. 9.(목) ~ 7. 21.(화)
- 서류발표: 8. 6.(목)
- 구술전형: 8. 11.(화) ~ 8. 12.(수)
- 최종발표: 8. 21.(금)
- 입학: 2016. 3.(또는 2015. 9. 조기입학)

모집단위

정보통신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전공학부, 환경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광과학과, 화학과, 의료시스템학과

모집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장학제도 및 특전

- 각종 장학금 및 지원금 年 약 1,436만 원(석사과정), 약 2,328만 원(박사과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100% 편입
- 기숙사, 기혼자이파트 제공
- 차별화된 교육환경(전과목 영어강의, 해외연구기회 제공, 이상적인 학생 대 교수비율(10:1), 학위논문 인증제)

입학설명회 및 오픈랩(변동가능)

-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7. 2.(목)14:00 서울(신촌), 7. 3.(금)14:00 서울(건대)
 - 캠퍼스 입학설명회 및 오픈랩: 7. 10.(금)11:30 지스트 오룡관 및 각 학부(과)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입학문의

대학원 http://admission.gist.ac.kr/g_main, 062-715-2052-4, admission@gist.ac.kr
대학 http://admission.gist.ac.kr/u_main, 062-715-2952-8, uadmission@gist.ac.kr

